

## AI·수소 등 10개 필수전략기술 선정...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

2030년까지 최고 기술국 대비 90% 달성... 내년 R&D 투자 3조3000억으로 확대

정부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우리나라의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을 의결했다.

앞으로 10개 기술에 집중지원하면서 내년 R&D투자를 3조 3000억원으로 늘리고 실증·데이터인프라 구축과 세제 지원 등의 전방위 지원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분야는 ▲인공지능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이다.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주요 선도국들은 공통적으로 10개 내외의 전략기술을 선정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주도권과 협상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전략기술 분야 기술력 확보가 관건이지만, 우리나라는 반도체·이차전지·5G 등을 제외하면 아직 원천기술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공급망·통상(경제안보), 국가안보(외교·국방), 신산업(미래혁신) 등 통합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야 할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별을 추진해 왔다.

이번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에서는 글로벌 기술패권 관점에서 집중 육성·보호해야 할 10개 기술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최고 기술국 대비 60~90%에 머물고 있는 기술수준을 2030년까지 90% 이상 달성을 목표로 국가역량을 집중하는데, 필수전략기술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방향을 토대로 기술의 확보부터 보호까지 종합적 육성·보호 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민간 협업체계를 통해 필수전략기술 내에서 더욱 집중해야 할 3~5개의 '세부 중점기술'을 선별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R&D로드맵과 실증·사업화, 규제개선, 기술보호 등을 포괄하는 육성·보호 종합전략을 수립해 나간다.

특히 올해 약 2조 7000억원 수준의 10개 필수전략기술 정부R&D 투자를 향후 수립될 R&D로드맵을 토대로 내년에는 약 3조 3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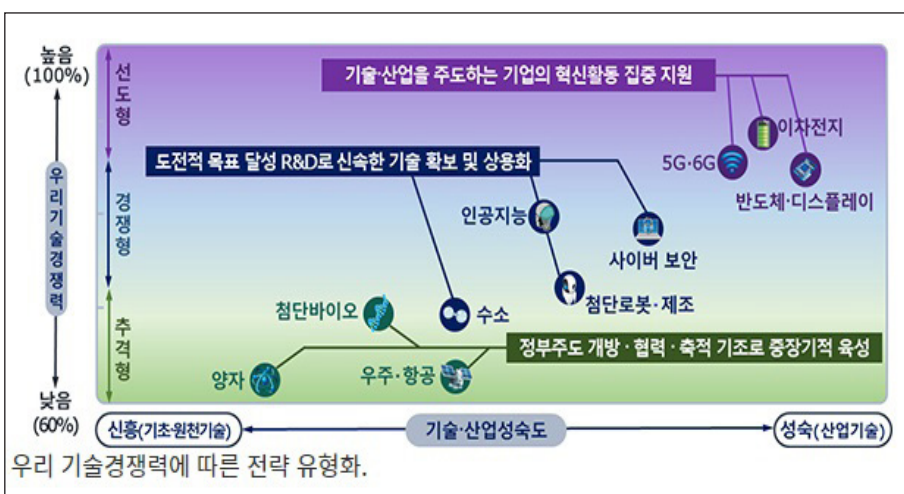
이와 함께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대규모 R&D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R&D에타 간소화와 산학연 거점 연구기관 지정·육성 등 기술개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실증·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기업 R&D활동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도 지원하고, 핵심인력 양성·확보 및 원천·핵심특허 확보 지원 등 민간의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술주도권 확보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표준선정을 위해 기술개발부터 전략적 표준개발 및 국제표준화 기구 리더십 진출 등을 지원하고, 국가핵심기술 지정 확대 및 인력관리를 통한 기술보호 조치 등을 강화해 나간다.

과학기술부는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 목표달성 R&D를 본격화하는데, 독보적 원천기술 수준의 과감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GPS·자율주행·mRNA백신 등 혁신적 연구성과를 창출한 미국 DARPA 방식을 지향하며 추진했던 그동안의 다양한 시도를 우선 점검해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제도개선 방향도 모색한다.

이를 통해 다수경쟁 및 중도탈락, 외부자원 활용, M&A 등 목표달성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목표대비 달성도를 치밀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으로써 대체불가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해 나간다.



또한 국가필수전략기술의 세부 중점기술이 세제지원과 기술보호 등 부처별 다각적 지원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체계 간 연동을 강화하며 필수전략기술을 추가 지정·변경하는 등 주기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 및 제도기반을 구축하고자 장관급 '(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필수전략기술 선정과 육성·보호 전략의 수립·추진·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공급망·산업지형 변화, 경쟁국 분석, 국제표준화 동향 등 필수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주기적 공유 및 대응책 등을 강구해 나가고, 민간합동 기술별 협의회를 통해 각 기술별 R&D로드맵과 상세 중점전략을 구체화해 나간다.

나아가 이번 전략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추진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갖출 계획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술 경쟁력이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기술주권'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민·관이 힘을 모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국가적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략을 통해 미래 국익을 좌우할 필수전략기술 분야에 국가역량을 결집,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함으로써 기술주권 확보라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 강원도-알리바바닷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진출 웨비나 성공 개최

강원도는 12.21 세계 최대 온라인 B2B 플랫폼인 알리바바닷컴과 강원도 소재 3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알리바바닷컴 연계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진출 웨비나"를 개최했다.

알리바바닷컴은 1999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200여개 국가 및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억명에 달하는 바이어들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플랫폼이다.

이번 웨비나는 알리바바닷컴과 강원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교육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B2B 트렌드의 변화, 강원중소기업의 주력품목인 뷰티, 식음료, 의료 분야의 트렌드 그리고 알리바바닷컴을 통한 성공 노하우 공유, 기업인들과의 질의 응답도 진행됐다.

알리바바닷컴 한국&일본 사업총괄 부장 Felix Yang(펠릭스 양)은 "알리바바닷컴은 내년에 한국 서

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특히 중국 최고의 온라인 판로개척 시스템과 노하우를 갖춘 강원도를 선택했다며 강원도 우수기업의 글로벌 B2B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 공조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이번 웨비나 이후 도내 기업들이 알리바바닷컴을 통해 글로벌 B2B 시장 진출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제품 판매를 확대해 나가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알리바바닷컴 또한 앞으로 강원도 소재 기업에 입점 우대, 서비스 확대, 교육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 중국통상과 최기철 과장은 "그간 코로나19 돌파를 위해 추진해 온 B2C 위주의 온라인 수출사업에서 B2B 시장에도 진출함으로써 증가세에 있는 강원수출의 확산세를 이어 나가기 위해 알리바바닷컴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추진, 수출길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등원기자

## 전남도, 청정·힐링 체류형 관광 실현 머리 맞대

22일 광주전남연구원서 심포지엄...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

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관광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2일 광주전남연구원서 심포지엄을 열어 청정·힐링 체류형 관광 실현 해법을 모색했다.

'전남관광 발전방안 논의'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는 관광 분야 학계, 전문가, 도 및 시군 관광 부서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전남이 청정·힐링의 대표지역으로서 위상을 확립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호 인하공업전문대 교수는 '국립공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 주제발표에서 최근 관광 흐름에 맞게 전남의 청정한 생태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류형 관광전략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김효진 목포대 교수는 '체류형 관광을 위한 웰니스 산업 육성방안'을 발표, 전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도록 차별화한 웰니스 뷰티관광 상품을 개발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화 컨슈머인사이트 연구원은 '소비자 조사 데이터를 통해 본

2021년 전남관광'을 주제로 월별 국내여행 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안전과 방역에 중점을 둔 안심 관광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이를 고려한 관광정책 발굴을 제안했다.

전문가 주제발표에 이어, 전문가 패널 토론회에는 김진강 호남대 교수, 박창규 전남도립대 교수, 곽행구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침체한 관광산업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 시·도와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관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또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 성공 개최'를 다짐하며, 이를 계기로 전남 관광의 힘찬 재도약을 이끌자는데 뜻을 모았다.

김영신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근 발표한 2022년 국내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전남만의 특화된 관광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전남이 체류형 관광의 중심지역으로 우뚝 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 남원, 달빛에 물들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기획전시  
이흥재 사진전

2021. 11. 24.(수) - 2022. 02. 27.(일)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갤러리2,3

\*상설전시 "개화동동(開花冬冬)-겨울에 핀 붉은 꽃"-갤러리1  
전북 남원시 함파우길 65-14 T.063)020-5660

N K A M





# politics 정치

2 문화매일 2021년 12월 24일 금요일

서현옥 경기도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5억 확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이 평택시 배다리근린공원(죽백동) 등 4개소의 LED 수국정원 조성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5억을 확보했다.

이번 교부금은 평택시의 주요 근린공원인 배다리, 모산, 부락산, 현화공원의 LED 수국정원 조성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며 시민들을 위한 편안한 안식처 제공과 공원 주변 삼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현옥 의원은 “배다리공원 등 평택의 공원들은 저수지와 녹지공간의 어우러짐이 뛰어나 주민들을 비롯해 관광객 등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라며, “이번 교부금을 통해 LED 수국정원이 조성되면 야간에도 방문객이 늘어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현옥 의원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작은 안식처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과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현옥 의원은 오염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노후생활 SOC개선사업 추진 등 시민들의 쾌적한 여가공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관역자치단체 최초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민 체감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혜영기자

##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 '주민참여형 통합돌봄 민간협력 방안 토론회' 개최

배수문 의원 “지역과 사회가 함께하는 양질의 돌봄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이 좌장을 맡은 '주민참여형 통합돌봄 민간협력 방안 토론회'가 22일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회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지역과 사회가 돌봄의 책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지사회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는 부족한 인프라와 돌봄 부담과 관련된 사례를 바탕으로 통합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중앙정부가 구상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역 사회가 주도하는 주민참여형 지역돌봄을 위한 민간협력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병화 경기도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 ▲민·관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서비스 창구 일원화, ▲자립 기반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민간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홍준 행복연대장교대리 대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간의 협력관계가 요구되며, 돌봄 대상자 중심의 선택과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돌봄 인력 및 인프라 확충과 지역 주민의 인식 전환 및 자발적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맹수영 한국장애인부모회 의왕시지부 회장은 발달장애인 대상 돌봄 시설의 인력 부족을 문제로 제기하며 지역사회 돌봄 모형 중 장애인부문의 돌봄 모형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문정희 경기도복지국장은 “현장의 종합적 복지행정을 가로막는 보건·복지 칸막이와 재정부족으로 인한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며,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시설이 아닌 지역 내 통합돌봄체계 안에서 존중받으며 살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배수문 의원은 “경기도가 그간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보

다 양질의 돌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경기도의회도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

도의회 장현국 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력국장,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하경환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발추진단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조혜영기자

## 이원욱 의원, 2021년 3차 특별조정교부금 34억원 확보!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은 김태형(화성3), 박세원(화성4) 경기도의원과 함께 2021년 3차 지방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 3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된 사업은 ▲동탄1신도시 등 공원 보안등 개선사업 10억원 ▲동탄권 공원시설물(데크) 정비 14억원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건립 10억원 등이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노후화된 지역 내 공원 보안등

및 시설물의 정비와 공원 내 주차타워 설치로 동탄 지역주민의 공원 이용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앞서 이원욱 위원장은 동탄 지역 다목적체육관건립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관련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원과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 동부대로4지하차도 보수공사, 동탄1동 예방마을 일원 보도정비 등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1억원을 확보하였고, 지역구 핵심사업인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화성동탄2역지지구 버스공영차고

지 지원, 민자도로 건설 지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구축,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의 2022년도 예산안 반영을 이루었다.

이원욱 위원장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동탄에 위치한 공원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동탄 지역 도의원들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계속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양시현기자

## 김주영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사용자 5대 법정 의무교육과 함께 노동관계법령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산업안전, 성인지 등 5대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동관계법령 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체불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자국민을 고용한 일반 사업주가 이수해야 하는 5대 법정 의무교육에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

지 않아 노동법 미숙지로 인해 매년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여성·청소년·외국인 장애인 등 4대 노동권 취약 계층을 고용한 전체 업체 중 노동법 위반 업체 적발 비율을 보면 2015년 47%에서 2017년 72%, 2018년 78%, 2019년 87%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노동법 위반 문제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노동관계법령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노동관계법령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 김평남 서울시의원,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될 것

'서울특별시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12월 22일 제303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의원(무소속, 강남2)이 지난 8월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이 예규 내에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이 조례가 담당했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자체를 삭제하여 앞으로는 보다 강화된 행안부 예규를 따르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심사위원 전원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

도록 하고 현행 조례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비율이 50:50이지만, 행안부 예규는 20:80으로 가격보다 기술평가 점수를 대폭 늘렸으며, 평가결과를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했다.

지난 2019년 3월 김 의원은 이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면서 특정제품과 함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도 포함하여 과거 서울시 계약심사 규칙에 의해 공무원 주도로 선정심사를 운영하던 것에서 심사위원의 절반을 외부전문가로 대체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행안부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을 새롭게 제정하였고, 현행 서울시 조례보다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조례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을 삭제하는 개정안 발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강화된 행안부 예규를 따르게 한 것이다.

김 의원은 비록 본인이 제정한 조례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을 삭제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당초 조례제정의 취지가 선정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였던 만큼 오히려 강화된 행안부 예규를 적용받게 되어 보람 있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이송되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광수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l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부회장: 박유식 / 사장: 임성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가50146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편집국: (02) 2612-2959  
팩 스: (02) 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 “구로구청 계단 오르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된다!”

“건강계단으로 생활 속 이웃 사랑 실천합니다!”

구로구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건강계단’으로 마련한 기부금을 취약계층 주민에게 전달한다.

구로구는 23일 “주민 건강 증진과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구청사에 ‘건강계단’을 조성해 운영 중이다”며 “올해도 건강계단을 통해 적립한 기부금 1000만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고 밝혔다.

‘건강계단’은 이용자 감지 센서를 부착해 사람이 올라갈 때마다 일정 금액이 적립되며 이용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디자인과 시청각적 재미 요소, 건강 정보도 가미된 계단이다.

구청 본관에 마련된 건강계단은 1~2층은 피아노 건반 모양으로 오를 때마다 소리와 불빛이 나온다. 2~5층은 잔디 디자인을 입혀 숲길을 걷는 느낌을 주도록 만들어졌다. 계단 위쪽에는 이용 시 소모되는

칼로리 양과 늘어나는 수명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건강계단을 통해 이용자 1인당 20원씩 적립해 연간 최대 1000만원을 기부한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총 7550만원의 기부금이 구로희망복지재단, 구로구장학회, 구로문화재단 등에 전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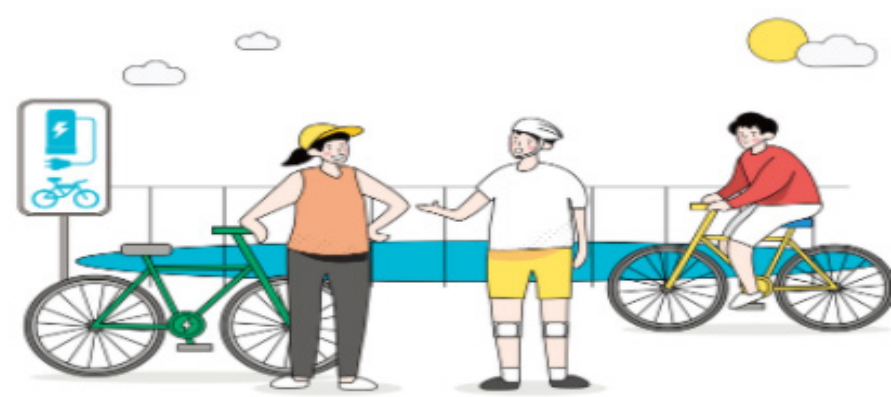
21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는 건강계단 기부금 전달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성 구청장, 정희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 오승주 구로구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계단 오르기는 일상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운동법이다”며 “코로나19로 운동량이 부족한 시기에 ‘건강계단’을 통해 건강도 좋아지고 어려운 이웃도 돕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 강동구,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사업 큰 호응 얻어



강동구가 서울시 최초로 시행한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사업’이 구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사업’은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중 150만 원 이하 생활형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면, 1가구당 1대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7월 전기자전거 구입 희망자를 접수한 결과, 100명 모집에 780명이 신청하여 사업에 많은 구민이 관심을 보였다.

이에 구는 2022년에도 3천만 원의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사업’

예산을 책정하여 구민 100명에게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구민들의 호응이 좋아 지원예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사업은 구가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데 있어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는 친환경 교통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규석/기자

## 마포구, 망원동 10년 숙원사업 '홍제천 망원나들목' 착공

“바로 앞에 홍제천이 있는데 웅벽에 가로막혀 10분을 돌아가야 하던 운동기구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망원2동에 거주하며 홍제천 이용에 불편함을 감수해왔던 70대 박천수(가명)씨는 “망원나들목 공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제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다”라며 ‘홍제천 망원나들목’ 착공 소식에 소감을 전했다.

마포구는 망원동 지역의 10년 숙원 사업인 ‘홍제천 망원나들목(방울내로 11길 87)’ 개설 사업이 지난 21일 착공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망원2동 주민들은 홍제천을 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제천 위를 지나는 성산로의 웅벽으로 인해 홍제천 이용은 물론 월드컵공원, 마포농수산물시장 등을 이용할 때도 우회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구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2009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올해 3월 지역수자원관리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홍제천에 설치될 나들목은 방울내로 11길 87 주변부터 홍제천 제외지(하천 제방으로 둘러싸인 하천측)까지 약 46.5m의 길이로 개설되며, 폭 4.5m, 높이 3m의 보행자 통로를 마련했다.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치수상의 안전을 위해 하천변 쪽으로 차수벽도 조성된다. 시설물 외관 디자인은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결과와 지난 9월 실시한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 결정했으며, 준공 예정일은 2023년 6월 20일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지역 주민분들이 오랫동안 열망해왔던 숙원 사업을 해결하게 돼 기쁘다”라며, “망원나들목 설치 사업으로 동행 불편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네 간 교류 및 경제 활성화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 서초구, 자매우호도시에 국내교류 달력 제작·배부



서울 서초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자매우호도시 간 교류 협력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자매·우호도시의 대표적 풍경 사진으로 구성된 2022년도 탁상달력을 제작하여 22개 국내 자매·우호도시에 배부했다.

구는 1988년 개청 이래 현재까지 22개의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체결하여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자매도시 간 대면교류 활동이 어려워지자 구는 지난해 4월, 구 홈페이지에 자매도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자매도시의 신선한 제철 농특산물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또 지난해 8월 역대 최장 장마로 수해 피해를 입은 4개 자매도시(제천시, 이천시, 예성군, 남원시)에 구 물품을 지원하는 등 자매도시 간 우호교류 협력 활동을 추진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에도 해외자매도시와의 교류활동 사진을 담은 2021년도 탁상달력을 제작하여 12개국 20개 해외 자매·우호도시에 배부한 바 있다.

홍희숙 행정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자매도시와의 대면 교류 활동

이 저조한 가운데 비대면 교류 활동을 개발 추진하여 지속적인 우호 교류 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서초구 국내교류 달력이 자매도시 간 교류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동희/기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도시 미래를 품다!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비전선포식 개최

### 건강한 먹거리, 지속가능한 개발 등 7대 전략 실현 위한 의지 밝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이달 22일 오후 구청 6층 대강당에서 ‘지속가능도시 서대문 미래를 품다!’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지속가능비전을 채택하고 이를 대내외에 알리는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성, 노인, 장애인, 청년, 기업산업계 대표 각 1인과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인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김진옥 교수, 분석진 구청장 등 7명이 7대 전략이 포함된 비전선언문을 낭독했다.

선언문에는 ▲인간웰빙 및 역량 강화 ▲건강한 먹거리 및 식량안보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및 노동 ▲저탄소에너지 공급 및 보편적 접근 ▲지구 환경 공공재 보호 ▲지속가능한 도시 및 근교 개발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거버넌스와 이행수단 등 7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서대문구의 의지를 담았다.

구는 올 들어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각계각층 11곳의 이해주체 그룹이 참여하는 속의공론의 장을 운영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도출했다.

이어 주민설문 조사와 부서 의견

수립, 전체 회의를 거쳐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비전이 확정됐다.

분석진 구청장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공존과 상생이 지켜지는 지속가능 발전을 통해 현재와 미래세대가 더 행복한 서대문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교수와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 구의원 등 40여 명으로 올해 4월 출범했으며 교육문화, 보건복지, 기후환경, 제도경제 등의 분과를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열었다.

조상순/기자

## 송파구, '거여·마천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위해 주민의견 청취

송파구가 주민 의견이 반영된 ‘거여·마천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 설문조사를 비롯, 최근 거여·마천지역 4개 동을 순회하며 주민 의견 청취에 나섰다.

송파구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거여·마천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과 10월에는 거여·마천지역의 도시미래상과 기부채납 부지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총 5,300여명에 대해 주민설문조사 실시하고, 11월에는 거·마지역 4개 동을 순회하며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이번 의견 청취는 거마지역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개최와

병행하여 진행됐다. 참석한 주민들은 ‘거여·마천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는 한편, 성내천 복원사업, 거여1동 주차난 해소방안, 존치관리구역 관리방안 요구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구는 이렇게 모인 주민들의 목소리를 관계부서와 용역사 등과 검토하여 계획 수립 시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20개 관계부서 44개 사업에 달하는 종합발전계획 수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 3월부터 관계부서 실무협의TF를 구성, 운영 중이다. 이달 실무협의 TF 4차 회의를 거쳐 ‘거마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주요내용을 최종 점검하고, 내년 2월 최종보고

회를 거쳐 3월 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석수 송파구청장은 “거여·마천지역 개발은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지역발전협의체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그동안 존치구역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마천2구역과 마천성당구역이 지난 10월 말 주민동의를 거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사업)에 공모하였고, 후보지로 선정되면 내년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규석/기자

## ‘안심하고 걸어요’광진구 아차산 동행숲길, 겨울철 비대면 안심관광지 선정

광진구의 대표 명소 중 하나인 ‘아차산 동행숲길’이 서울에서 유일하게 ‘겨울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 중 하나로 선정됐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겨울철 관광지 25곳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자연 속 힐링 관광지를 비롯해 다양한 역사유적지, 옛 정서를 간직한 간이역 등이 선정됐다.

아차산은 서울의 대표적인 해맞이 명소이자 일상 속 구민의 휴식처로 사랑받아 왔다. 이번에 안심관광지로 선정된 아차산 동행숲길은 올해 6월 새롭게 단장한 무장애 숲길이다. 계단이 없어 노약자나 장애인 등 보행 약자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동행숲길 주변 수목에는 저마다

의 이야기가 담긴 이름표를 부착해 놓아 숲과 대화하며 산책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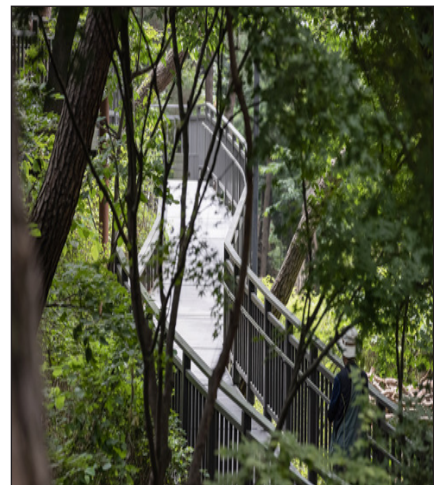
한편 아차산 향토자료실 및 역사문화홍보관에서는 아차산을 찾는 구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역사문화교실’과 ‘역사문화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전문 해설사의 해설과 함께 아차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몸소 체험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2022년에는 ‘아차산 숲속도서관’이, 2023년에는 ‘홍련봉 보루 유적전시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힐링 공간 및 역사 교육 시설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아차산 동행숲길이 겨울철 비대면 안심관광지로 선정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

에게 알려지게 되어 기쁘다”라며 “광진구가 누구나 찾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문화매일 3  
2021년 12월 24일 금요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국민참여 국민권익위 청렴콘텐츠 공모전 웹툰.. 부문 장려상 수상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 소속 김현정 주무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한 ‘2021년 국민참여 청렴 콘텐츠 공모전 웹툰·포스터·일러스트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6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1년 국민참여 청렴 콘텐츠 공모전은 △가정·학교·직장 등 일상에서 경험한 청렴 관련 사연 △내가 바라는 우리 사회의 청렴·공정한 모습 △관행화된 갑질에 대한 경험과 생각 등을 주제로 청렴 문화 확산 및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은 △스펠 △시 △웹툰·포스터·일러스트 △영상 △노래 등 5개 분야에 역대 가장 많은 2,570편의 작품이 접수됐고 김현정 주무관은 “나의 선물”이라는 작품으로 응모해 장려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작품은 학교에서 계약 업무 담당자의 흔들림 없는 청렴이 딸(국민)에게 안전한 세상을 선물한다는 내용으로 진솔하게 담았다. 김현정 주무관은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는 법과 지침을 준수하면서 항상 청렴을 실천하는 선배님, 동기, 후배들을 대신해 받은 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남부교육지원청은 직원들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청렴 의지를 다지기 위해 △온(On)통(통) 청렴데이 △청렴퀴즈 △청렴레터 △청렴주의보 발령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이번 수상은 자발적으로 청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평수/기자



## 화성시의회, 제208회 임시회를 끝으로 2021년 의사일정 마무리



### 광명시, 양육 부담 경감...내년 아동수당, 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

광명시는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취약계층 아동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아동수당과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확대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9월 최초 도입됐다.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으며,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한다.

지원 연령 확대에 따라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2.1. 이후 출생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일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인해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이미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2014.2.1.~2015.3.31.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또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돕는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비율이 1:1에서 1:2로, 지원 한도는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정부는 보호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합한 금액만큼 지원해왔지만, 2022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아동 적립금의 2배로 확대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와 디딤씨앗통장 매칭비율 확대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 아동이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화성시의회는 23일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1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화성시 습지보호지역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부류되었다.

또한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 자치법규 18개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이날 안건심의에 앞서 황광용(더불어민주당, 반월,병점1,병점2,진안)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의 주택난이 심각해지면서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시민들의 주거안정정책의 일환으로 지어진 5년,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성토했다.

"반월동 자이 에프 아파트와 향남 부영아파트, 동탄 등지의 아파트 20여개 단지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건설사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시세보다 높게 매입한 토지매입과 현시점 기준 책정으로 높아진 분양가 피해를 입주민들이 감당하고 있다. LH나 대기업이 시민들을 상대로 집값이 올랐다고 집장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라며 "시장님께서는 화성시 공공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시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분양될 수 있도록 중요하고 시급한 화성시 주거안정정책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조오순 의원, 부위원장에 김도근 의원이 선임되었다. 조오순 위원장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에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집행부원내대로 3조 4,235억원이다. 금년 증액 반영된 사업은 시의적절하게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바란다. 또한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월액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결국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통해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 직후 의회 본회의장에서 폐회식을 열고 1년 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의회가 선정한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 모범공무원 6명, 올해의 우수의원 4명(배정수, 송선영, 엄정룡, 임채덕)에게 상을 수여했다.

원유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렇듯 엄중한 시기에 의회는 시민들이 기릴 수 있는 언덕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위해 변화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필요하다. 의회가 혁신의 주체로 앞장서야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내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는 데에 모든 역량을 다하며, 시민여러분이 실질적인 자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 은수미 성남시장, 시민과 함께하는 간판개선사업 현장 방문

성남 은수미 시장은 23일 오전 최근 '시민과 함께하는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한 분당구 야탑동 경남아너스빌 상가동 현장을 찾았다.

은 시장은 현장에서 "기존의 오래되고 난립했던 간판들의 수를 줄이고, 친환경 LED 디자인 간판으로 교체했다니 전체적으로 경관이 개선돼 새 건물 같아 보인다"며 "작년에 시작해 올해 처음으로 결과가 나온 이번 '시민과 함께하는 간판개선사업'은 소유자, 점포주 등 상가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했다. 여러분이 직접 사업 과정 전반에 참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사실에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경남아너스빌 상가동 주민협의회장 이대환 목사는 "상가 숙원사업이었다. 낡고 중구난방이던 간판들은 외관도 문제지만 화재에도 취약

해 불안했다"면서 "지금은 깔끔하게 바뀐 상가 모습이 분위기 있는 외국 건물 같으며 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좋아한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다. 정말 감사하고 은혜롭다"고 말했다.

이에 은 시장은 "저희가 은혜를 받았다. 이러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는 양보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조율 과정이 항상 어렵다. 감사하게도 이번 경남아너스빌 상가동의 모범적 사례를 통해 앞으로 다른 상가들의 사업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고 답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간판개선사업은 도시경관을 해치는 난립한 광고물을 시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 특성과 업소의 개성을 반영한 디자인과 에너지 효율을 함께 갖춘 친환경 LED 디자인 간판으로 교체함으로써

전체적인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작년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어 8월 대상자 공모에 신청한 관내 3개소 중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야탑동 경남아너스빌 상가가 선정돼 추진됐으며, 지난 1일 마무리됐다.

경남아너스빌 상가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아 구성된 주민협의회(13명)가 디자인 기본계획부터, 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 편성과 운영을 비롯해 공사 과정 마지막까지 직접 참여했다.

기존에 난립했던 상가동 광고물 90개를 철거하고, 1점포당 1개 간판 설치를 원칙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약 1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LED 디자인 간판 35개를 설치했다.

이성윤기자

## 평택시 정장선 시장, 직장운동경기부 연말 우수선수 시상식 등 격려

평택시는 지난 21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를 대상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격려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격려 행사는 지난 1년 동안 국내외 대회를 출전하며 입상한 직장운동경기부를 격려하는 자리로 식전 음악행사, 대회출전영상 시청, 공로자 표창, 기부행사 등으로 진행했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행사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활동과 입상 등을 축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선수들이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어 앞으로도 평택시의 위상을 높여주었으면 한다"라고 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볼링팀에서는 최근 우승하였던 인카볼링 슈퍼

볼링 2021에서 우승상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고, 장애인유도팀도 개인이 받은 포상금을 기부했다. 그리고 하키팀에서도 기부금을 모아 연탄은행에 약 2,500장 정도를 기부하기도 했다.

한편, 평택시 직장운동경기부는 볼링, 하키, 역도, 요트, 레슬링, 장애인유도, 장애인역도 등 7팀에 총

60명이 속해있으며, 매년 볼링교실, 요트교실 등을 열어 재능기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번 2021년에는 총 159개의 메달(금83, 은35, 동41)을 획득했고, 올해 21명이 국가대표로 활동해 평택시 및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공헌을 세우고 있다.

양시현기자



## 이천시, 올해를 빛낸 시민행복 10대뉴스 선정

이천시가 올해를 빛낸 시민행복 10대 뉴스를 선정해 22일 발표했다.

10대뉴스는 지난 15일부터 21일 까지 시민 2,981명이 참여했으며, 2021년 주요정책사업 20개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10개까지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선정된 10대 뉴스로는 ▶설봉공원 인공폭포, 음악분수 조성, 시민을 위한 힐링공간 마련▶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편택-부발-강릉선 고속화 확정▶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천터미널~호법~마장~강남역 광역버스 유치▶시민 밀착형 폭염 피해예방 대책 추진▶소아청소년 야간진료서비스 시행 추진▶공영주차장 확충▶이천자동차극장 개관으로 시민의 문화생활 지원▶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확정 및 예산반영▶「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운영으로 시민의 깊은 고민 해결 중이다.

■ 설봉공원내 설봉폭포 및 음악분수 조성, 시민을 위한 힐링 공간 마련

지난 8월 자연석을 활용한 자연암공법으로 높이 10m의 폭포와 돌레계단, 경관조명 등으로 설봉폭포를 조성하여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데 이어, 10월에는 음악분수 시설을 설치하여 1일 1회(20분 소요) 운영하였으며, 특히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편택-부발-강릉선 고속화 확정

국토교통부가 5월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편택-부발선이 최종 반영되며, 경강선과 연계하여 평택항에서 강릉까지 대한민국 동서축을 철도망으로 직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동시간이 1시간 20분으로 대폭 줄어 여객 및 물류수송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치열한 노력!

코로나19 초유의 사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선별진료소 2개소, 임시선별진료소 4개소(종료포함)를 운영하였다. 특히, 고속도로(상)이천휴게소에 선별검사소와 '찾아가는 선별검사 서비스'를 추가 실시하여 총589,260건의 검사를 진행했다.

■ 이천터미널~호법~마장~강남역 광역버스 유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관 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으로 이천터미널~마장택지지구~강남역까지 운행하는 직행좌석형 광역버스 노선이 최종 확정되었다. 인가대수는 총8대, 배차간격은 20~30분이며, 이용객 수요가 높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확대하여 일 20회 운행할 예정이며, 내년도 1분기내 운행계시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 시민 밀착형 폭염 피해예방 대책 추진

시민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총32일간의 폭염특보 기간 동안 이천행복나눔그늘 47개소 아이

스박스를 설치하고 매일 얼음물 44,500개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로당 및 야외 무더위 쉼터 총345개소에 생수를 지원하고 취약 노인 등 폭염취약계층에게는 쿨매트, 쿨베개 1,063개를 배부하였다.

■ 소아청소년 야간진료서비스 시행 추진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의 협약 체결을 통해 소아청소년 응급환자에 대한 야간 진료(평일 16시~24시)가 가능하도록 의료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로써 내년 1월부터 시민들의 응급의료 공백이 해소되리라 기대된다.

■ 공영주차장 확충

민선7기 동안 완료 또는 계획 중인 공영주차장은 총11개소, 1,820면으로 역대최대 규모로 권역별로 균형 있게 조성중이다. 올해는 북셋말, 택시쉼터 및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등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내권 주차장 총479면을 확보하였다. 이와 더불어 남천공원 230면,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장 457면을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이천자동차극장 개관으로 시민의 문화생활 지원

부발 종합운동장 내 이천자동차극장을 5월 개관하여 주 1회 무료영화 상영과 비대면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무대로 활용하며 코로나19 시대에 맞춤형 문화생활을 지원하였다. 또한, 2021년 을지대극의 경기도 실재 훈련을 민·관·군·경·소방이 합동으로 준비하여 관람형 시범 훈련을 개최(8월)하기도 했다.

■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확정 및 예산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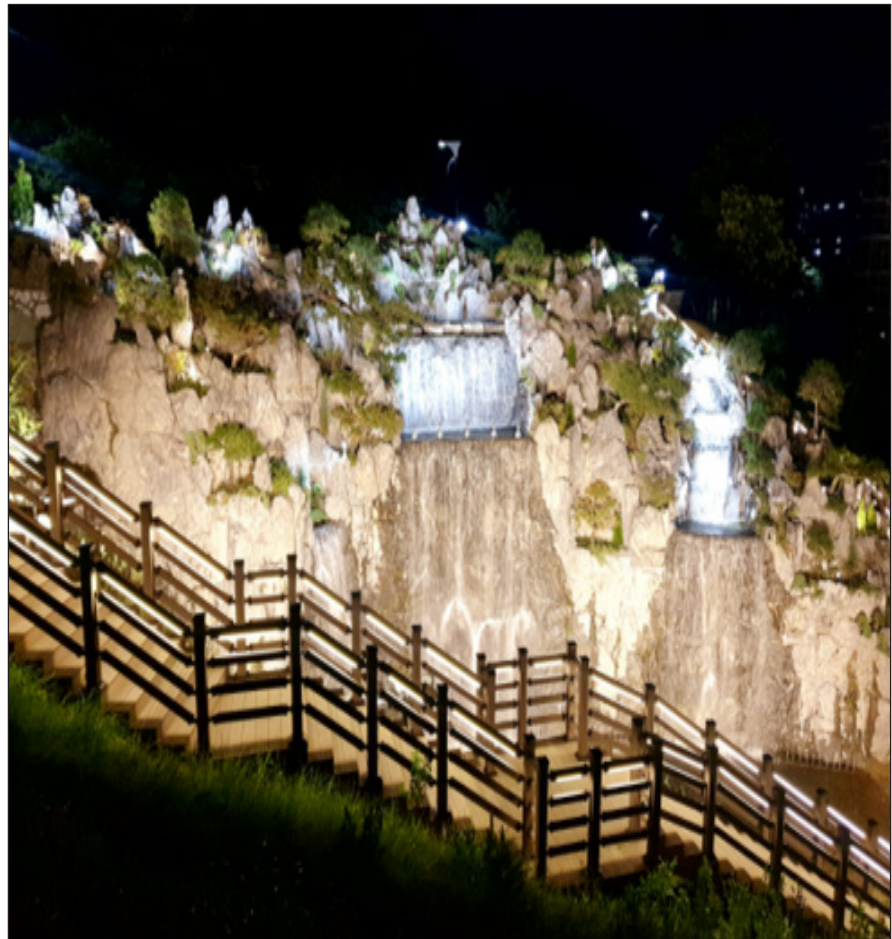
지난 9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국지도 70호선 확장 사업(이전 백사~여주 흥천, 대포~장록)과 국도 37호선 신설사업(여주 점동~이천 장호원)이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었다. 특히, 매년 교통량이 증가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국지도 70호선 2개 구간은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받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설계용역이 조기 착수된다.

■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운영으로 시민의 깊은 고민 해결

시 소속 변호사가 법률상담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 월 1회 읍면동을 순차적으로 찾아가 민사·형사·가사·노동 등 시민 생활 전반에 대해 법률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다. 기존에는 법률 상담이 필요한 시민이 시정을 찾아왔으나, 시민의 이동편의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1년 한 해 동안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인 10대 정책 사업을 선정할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시민에게 공감 받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공무원들이 알게 되고 향후 시민 눈높이 정책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윤기자





# 경기도, 영세기업·복지시설 등 53곳에 공공디자인지원

## 경기도, 22일 메타버스로 '2021 디자인 나눔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경기도가 올해 디자인 나눔 사업을 통해 40개 영세기업에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13개 공공·복지시설의 생활환경을 개선했다.

도는 22일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ifland)'에서 '2021 디자인 나눔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양철민 경기도의회 의원, 김현선디자인연구소, 경희대·신한대·한양대 교수 및 대학생, 디자인 전문회사, 기관(기업) 관계자, 봉사자, 의료종사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과 디자인 나눔 사업 추진 성과 사례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한 경기도 디자인 나눔 사업은 민·관·산·학이 함께 도내 영세기업(장애인, 노인, 정보화 마을, 자활기업 등) 디자인

개발 및 우수상품 실용화 제작 지원과 공공·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생활밀착형 공공디자인 사업이다.

지난해 우수상품 실용화 지원을 받은 기관들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144%의 매출 증가의 효과를 보였고, 디자인 지원을 받은 수혜 기관을 조사한 결과 평균 95% 이상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는 디자인 전문성과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 전문회사 김현선디자인연구소가 참여하고, 노루페인트에서 페인트를 무상으로 지원, 코다스디자인과 마켓비에서 현물 가구를 지원했으며, 기존 복지시설에서 공공시설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 총 53개 기관에 지원

을 완료했다.

유형별로는 ▲영세기업 생산품 포장류 및 패키지 디자인, 로고, 브랜딩 디자인 등 26개 ▲디자인 개발이 완료된 우수상품 실용화 제작 지원 14개 ▲노후 가구 교체, 내·외부 색채디자인 등 사회복지시설 생활 환경개선 11개소 ▲경기도의료원 의료종사자 휴게공간 개선 2개소 등이다.

또한, 의료종사자 휴게공간 개선을 위해 도는 처음으로 공공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를 적용해 여러 차례 현장조사, 인터뷰 및 워크숍, 디자인 발전(디벨롭)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뒤 효율적인 공간을 조성했다.

주정희 김현선디자인연구소장은 "사회공헌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경기도 디자인 나눔 사업에 참여



하게 됐다"며 "디자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디자인 나눔 사업이 더욱 확대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디자인 나눔 사업을 통해 영세기업들은 상품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높여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나

고 있으며, 공공·복지시설 또한 생활환경이 보다 나아지는 계기가 됐다"며 "이 모든 것은 전문가와 자원봉사자의 소중한 재능기부와 투철한 봉사정신이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디자인 나눔 사업에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C**  
capital area  
수도권II

문화매일 **5**  
2021년 12월 24일 금요일

'내 손안의 인천 서구청'  
소통1번가, 온라인 3D  
전시관으로 만나다!

인천 서구가 공식 홈페이지 '소통1번가' 온라인 3D 전시관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 3D 전시관은 '내 손안의 서구청'이라 불리는 소통1번가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자체 홈페이지의 새 길을 열며 주목받은 소통1번가만의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을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23일부터 서구 홈페이지 '보이스북' 메뉴를 통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전시관은 메타버스적 요소를 기반으로 입체공간에서 360도 회전하며 자유롭게 콘텐츠를 둘러볼 수 있으며 소통1번가 탄생 스토리, 1년간의 기록, 새로운 기능 등이 담겼다.

서구는 전시관을 구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서구 대표 캐릭터인 서동이·동동이와 사진을 찍는 포토존 및 소통 MBTI 테스트 등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다음달 6일까지 '서동이와 만나'는 확실한 행복'이라는 '스탬프 이벤트'도 진행한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전시관은 소통1번가 모든 내용을 압축해 알기 쉽게 정리한 백서같은 개념"이라며 "소통1번가 특징을 살려 두꺼운 종이 책자가 아닌 3차원 온라인 전시 공간으로 꾸몄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만나는 소통1번가처럼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많은 구민과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중남기자

## 화성시, 2021 찾아가는 보건복지 '최우수' 지자체 선정

화성시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 찾아가는 보건복지분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이날 수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1,6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2021 찾아가는 보건복지분야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자치단체별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실적 평가를 통해 주민체감형 성과 발굴과 확산은 물론 주민중심의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및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자치단체 문제해결 역량강화 부분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화성시는 이 중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분야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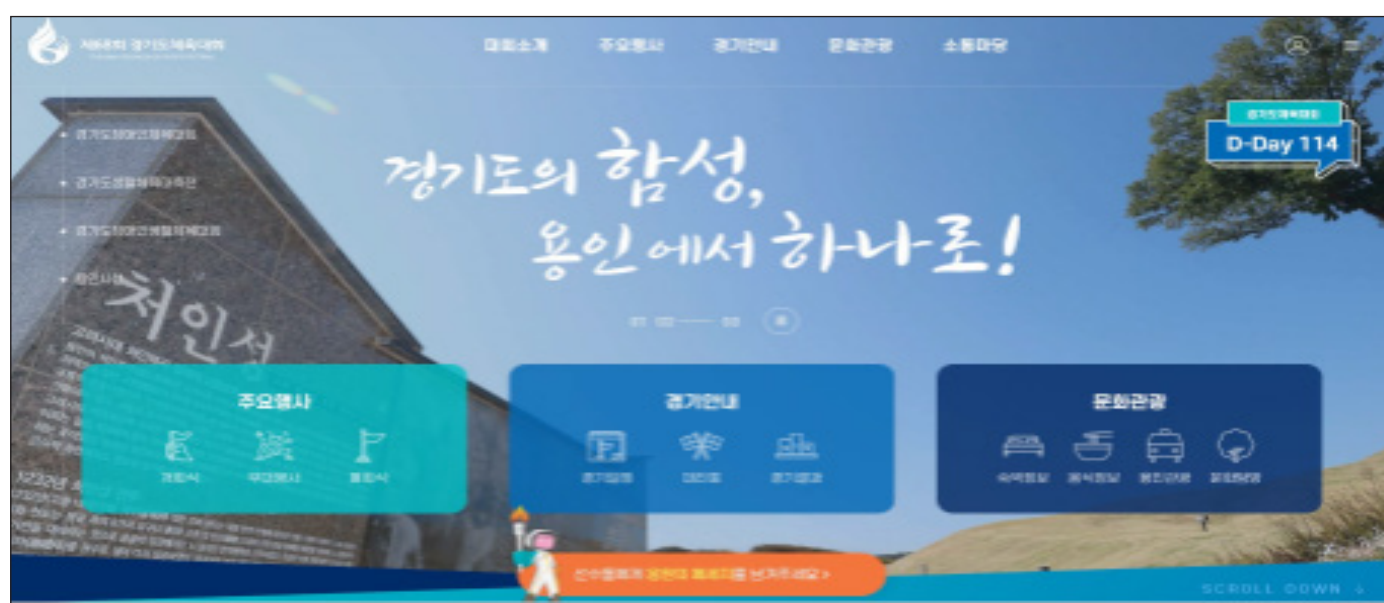
화성시는 그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찾아가는복지팀 설치를 확대하고,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방문상담과 전문적인 복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방문대상 확대, 종합상담 기능강화, 복지+건강기능 강화, 민관연계 사업을 실시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박민철 복지국장은 "화성시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민들이 보건복지 서비스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정비하고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 용인시,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홈페이지 개설



용인시가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공식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종합 안내 사이트와 함께 제68회 경기도체육대회, 제12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의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종합 안내 사이트에서는 각 대회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각 대회 홈페이지에서는 ▲대회소개 ▲주요행사 ▲경기안내 ▲문화관광 등의 코너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대회 전반에 걸친 정보를 한번에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선수단에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거나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소통마당도 운영한다.

특히 시는 PC 및 모바일 등 사용 기기에 따라 화면 크기가 자동으로 변환되는 '반응형 홈페이지'를 적용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대회 기간 중에는 몸이 불편하거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기장을 찾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경기를 볼 수 있도록 중계할 예정이다.

2022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와 제33회 경기도생활체육대회 홈페이지는 내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제3회 경기도어울림체육대회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회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

리 등 용인의 수준 높은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겠다"면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선수단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는 ▲제68회 경기도체육대회(4월 14~16일) ▲제12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4월 28~30일) ▲2022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10월 7~8일) ▲제33회 경기도생활체육대회(10월 28~31일) 등 총 4개 대회로, 모두 용인시에서 열린다. 아울러 내년에는 제3회 경기도어울림체육대회(9월 2~3일)도 용인시에서 함께 열린다.

조혜영기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 #새로운\_자치분권의\_시작

# #광고\_경기도의회\_신청사



## 하남시, 2020년 상수도 업무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경기도 2020년 상수도 업무 성과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돼 도시사표창

하남시는 경기도가 최근 실시한 '2020년 상수도 업무 성과평가'에서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상수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유수율, 요금현실화율의 경제적 성과 2가지 항목과 상수도보급률, 노후관 교체실적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상수도 경영성과 9가지 항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하남시를 비롯한 6개 시·군 수도사업자가 도시사 표창 대상으로 확정됐다.

하남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도 공기청정기 평가 상수도 부문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

된 바 있다. 또 환경부 주관 2021년 일반수도사업자 운영관리 실태점검에서 '매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이번 경기도 평가까지 총 3개의 상수도 분야 평가에서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됐다.

유찬주 상수도과장은 "최근 우리시가 상수도 분야에 관한 여러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시민들에게 수도물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강호/기자

##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 선정'도비 200억 원 확보

이천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경기형 청정하천(도시·문화형)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도비 200억 원을 확보했다.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은 도민 모두의 공간인 하천의 가치를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혁신 공간을 만들고자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올해 5월부터 처음 도입·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천시는 중심시가지에 흐르는 중리천의 복개 시설을 철거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치수적 안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단절된 생태축을 연결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여 살아 숨 쉬는 하천으로 만드는 계획이다.

먼저, 1단계 사업으로 중리사거리부터 한아름공원까지 450m의 복개하천을 철거하고 산책로, 친수공간, 경관교량, 주차타워, 하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등을 설치하고 인근의 설봉근린공원, 관고전통시장, 안흥지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해 중



리천을 이천 시민의 휴식처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청정하천 사업은 도비 200억 원, 시비 280억 원 총 480억 원이 연차별로 투입될 예정이다.

염태준 이천시장은 "하천 주변의 수려한 역사 문화공간과 도시 친수 공간을 융합해 '거닐며 소통하는 도

심 속 블루 네트워크'를 구축, 침체해 가는 주변 상권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며 "청정하천과 지역자산을 융합한 새로운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이천시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욱/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가는 길'을 통한 장애이해교육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3일까지 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영화관으로 떠나는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한다.

영화는 서울서진학교가 건립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가는 길'로 개교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에게 갖고있는 시선을 담았다.

특히 학교가 없기 때문에 아이가 겪는 불편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으로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은 발달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와 우리 사회의 시선을 보여준다.

도성훈 교육감은 "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 평택시 안정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청정안정' 환경미화활동 지속 추진

'안정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지난 7월 안정리 일대에서 '더 쾌적한 안정리, 더 깨끗한 안정리'라는 목표를 가지고 '청정안정' 환경미화동아리를 결성해 8월 11일 첫 활동을 시작했다.

'청정안정'은 평택시 평성을 안정리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매일 마주하는 쓰레기들을 보고 '안정 환경의 날'을 지정해 주민들과 함께 환경보전의 의미를 되새겼고 이를 발판삼아 깨끗한 안정리를 만들자는 취지로 안정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기획한 마을 환경미화동아리이다.

친환경 문화의 개념과 실천 의식 함양, 주민 주도의 친환경 및 마을

가꾸기 문화 확산과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안정리 예술인 광장에 모여 거리에 쓰레기 줍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안정리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안정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이은영 코디네이터는 "안정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센터가 앞장서서 환경미화 봉사를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이 되었다는 것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활동할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 수원시, '제3차 법정문화도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6개 지자체 지정...5년간 국비 최대 100억 지원

수원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제3차 법정문화도시'에 선정돼 5년간 국비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문화도시 대상지로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지자체를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제3차 문화도시에는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2022년 15억 원)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최대 200억 원(국비·시비 각 100억 원)을 투입해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도시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3차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추진한 예비사업 실적과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검토한 후 현장 실사, 발표 평가를 거쳐 제3차 법정문화도시를 선정했다.

수원시는 다양한 생활권역에 있는 풍부한 문화자원을 시민이 원하는 문화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활용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문화 자산을 활용해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하고, 도시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제3차 예비 문화도시' 대상지로 선정돼 1년간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예비도시 사업을 추진했다.

수원시가 추진하는 문화도시의 핵심은 '시민 참여를 통한 문화 거버넌스 구축'이다.

시민협의체·기관단체협의체·행정협의체·기획자문그룹 등 '문화도시 추진 거버넌스'를 구성했고, 문화도시센터·운영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또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문화도시 추진·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행·재정적 준비를 마쳤다.

수원시는 2019년 12월 수원시의 문화 정체성을 찾는 시민협의체인 '문화도시 시민정담회'를, 올해 5월에

문화도시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수원시자원봉사센터 등 수원시 6개 협업 기관이 참여하는 '기관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다.

6월에는 문화도시 조성 관련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시민 제안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수원시 문화도시 행정협의체'를, 8월에는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평가하는 '수원시 문화도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문화도시 수원의 지향점은 정조의 '위민'과 '실사구시'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시민이 이뤄가는 따뜻한 사람의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번 문화도시 선정은 수원시가 도시팽창과 사회변화를 문화적 관점에서 대응하는 도시로 변모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고양시

# 사각관과

# 정의로운

##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

#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 산림청, 여수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 점검

서부지방산림청장은 12월 23일 여수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을 찾아 전라남도, 여수시청 기관장을 만나 전남 동부권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실태와 방제 현황을 점검하고, 국·사유림 구분없이 공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 동부권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난 2010년 여수시 평여동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후 여수·순천·광양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2010년 당시 4본이 발생하였으나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19,447본이 발생하여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과 전라남도는 이

러한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 순천국유림관리소,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담양시와 함께 전남 동부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4개 시·군 지역에 대해 국·사유림 구분없이 공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장형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주기적인 방제현장 점검을 통해 방제사업 부실 설계·감리·시공을 사전 예방하고 방제품질 향상으로 방제사업의 효과를 높여 소나무재선충병 지역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성지아기자

## 제주시, 2021년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완료

제주시는 지난 11월 말까지 어린이집 70개소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점검을 마친 뒤, 기준을 초과한 7개소에 대해 개선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어린이활동공간 대상 748개소 중, 5년 이내 점검 이력이 없는 70개소의 어린이집을 선정해 50개소는 자체 점검하고, 나머지 20개소는 환경부 지원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기본 점검은 시설물의 바닥재와 도료 마감재 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했으며, 지난 10월 검사기관과의 합동점검에서는 ▲보육실 실내공기질 적합 여부 ▲놀이터 모래 중금속과 기생충 검출 여부 ▲놀이터 합성고무 바닥재 유해물질 함유량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검사했다.

최재은기자

## 김제시 강해원 부시장 코로나19 종교시설 특별점검

김제시가 종교별 의례일(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종교행사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22일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김제시는 강해원 부시장을 중심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교회, 성당, 사찰 등을 다니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대책’ 및 연말연시 각종 종교행사 등에 대한 방역지침준수 및 행사자체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김제시는 300여개소에 달하는 종교시설이 있으며 각 종교시설에 대해 김제시청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종교시설 1:1전담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코로나 19대응에 적극

적 대처를 기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종교시설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날 종교시설 점검에 팔을 걷은 강해원 부시장은 각 종교지도자들을 직접 만나 “현재 오미크론 변이마미 러스가 여러지역으로 전파되고, 전국적인 확진자 증가로 의료대응 역량 한계치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규 종교활동의 인원을 축소하고 연말연시 종교행사를 자제하여 코로나를 이겨나가는데 종교인들이 앞장 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태기자

## 경남도, 동절기 전통시장 화재예방 점검 나서

경상남도는 계절적인 요인과 밀집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도내 185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전통시장 화재예방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실시하며, 화재안전등급 d·e등급 15개소는 도·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방서가 합동으로 점검하고 나머지 170개소는 시군이 자체 점검한다.

자동화재감지시설,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작동 유무,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 정비 필요 여부, 안전교육 훈련 실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상인회를 통해 개인별 화재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5년간 도내 전통시장 화재발생은 평균 5.7회, 재산 피해는 평균 2,900만 원이다. 지난해 화재발생 건수는 3건으로 2019년(5건) 대비 감소했으나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특성상 대형화재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 확산자 증가에 따른 전통시장 내 감염 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이행 점검과 화재공제 가입 독려 등도 병행한다.

경남도는 2017년 대구 서문시장 대형화재를 계기로 정부지원의 보장성 화재공제사업이 운영됨에 따라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화재공제 비용 부담을 줄여 도내 시장 점포의 가입률을 높이고자 화재공제 가입 점포

공제료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도입·시행해 오고 있다.

정부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은 '전통시장 특별법'상 전통시장의 개별 점포 대상으로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중 선택할 수 있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가 보조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최대 12만 원 이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증권을 첨부하여 시장 소재지 시군의 전통시장 담당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화재에 취약한 동절기를 맞아 화재 없는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을 위해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 예방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도 화재공제료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적극 가입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9년 전통시장 실태조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과거 화재 발생원인은 누전(58.8%)이 가장 많았으며 부주의(25.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남도는 올해 노후전선 정비사업 6억 원,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 5억 원,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 3억 원 등 화재예방과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 사업에 1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윤광남/대기자

## 광주광역시 동구, 민·관합동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집중점검

광주 동구가 오는 27일까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동구는 담당공무원 및 민간 환경단체로 이루어진 2개조 점검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민원 유발사업장과 다수인 민원 발생사업장 15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장 비산먼지와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감시활동을 강화해 악취와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동구에서는 미세먼지가 많은 계절에 집중적으로 민간환경감시원을 채용,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과 감시활동에 적극 대처해 왔으며 분기별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해 왔다.

특별점검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운영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현장지도도를 통해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면서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상시 점검으로 깨끗한 대기질 확보 등 구민 건강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 영등포구, 겨울철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총력

영등포구는 겨울철 폭설, 화재 등 각종 재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건축 공사장과 안전 취약시설 총 58개소에 대한 외부전문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구는 지난 11월 20일부터 중·대형 건축공사장 48개소와 3층시설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등의 안전취약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대책 수립 여부와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토질·기초기술사,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 인력과 서울시 자문단과의 합동점검으로 실시됐다. 주로 ▲비상연락체계 구축,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타워크레인, 천공기 등의 건설장비 안전관리 및 공사장 주변 정돈상태 ▲굴도 공사장의 경우 지반 침하·균열 및 흩막이 부재 손상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화재, 폭발 및 질식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감풍에 대비한 가설울타리, 가림막, 낙하물방지방 등

의 시설 보강·유지관리 상태 ▲동절기 폭설 대비 비상용 제설장비 및 장비 확보 여부 등도 빠짐없이 점검했다.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반·건축물·주택사면의 부등침하, 기울음, 탈락, 부식, 노출, 누수 여부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변형 등 재난위험요소 ▲위험요인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 실시 여부를 확인했다.

코로나19 방역 현황도 빠짐없이 점검했다. ▲공사장 출입 근로자 관리 ▲개인 위생수칙 준수 ▲현장 내 소독·환기 실시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근로자 건강 관리에 유의해 작업할 것을 당부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일부 결함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조치 명령과 함께 추가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해 향후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정기적이고 면밀한 안전 점검을 통해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긴밀한 비상연락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현장 관리의 실시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 충북도, 도내 종교시설 성탄절 특별방역점검 실시

### 성탄절 기간 도내

### 종교시설 2,314곳

###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충북도는 성탄절을 맞아 도내 종교시설 2,314곳을 대상으로 12월 24일부터 25일까지 도시군 합동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추주 모 종교시설 14명 확진, 제천 모 종교시설 8명 확진, 증평 모 종교시설 20명 확진

등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도내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성탄절을 맞아 교인들이 종교시설로 몰릴 것이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

지난 12월 18일부터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라, 정규 종교활동 시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기준 50%에서 30%(최대 299명까지)로, 집중완료자만 구성하는 경우 기준 100%에서 70%로 참석인원이 축소됐고, 소모임 인원 또한 집중완료자만 구성하는 경우 기준 8인에서 4인으로 축소됐다.

도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집단감

염이 잇따르고 있는 종교시설의 방역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성탄절 기간 전반적인 기본방역수칙 준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도내 종교시설에 대해 매우 주일예배(미사) 시 방역 점검을 했고, 지역종교계에서도 자율적인 방역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성탄절 특별점검에 앞서 종교시설의 관리자와 이용자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완도군, 주민 배심원 회의 개최로 공약사항 점검

로 최종 승인되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주민 배심원단 운영 취지는 공약의 주인인 군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민의를 군정에 반영하여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임기가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

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군 민선 7기 군수 공약 사업은 총 51개이며, 현재까지 23건이 완료되었고 3건은 폐기, 나머지 25건은 추진 중으로 약 80%의 공약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양영욱/기자



### 남원시, 동절기 대비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실시

남원시가 관내 자전거도로에 대해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남원시는 12월 23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 간 날씨가 추워진 동절기에 대비해 관내 자전거도로를 대상으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절기 자전거도로의 노면과 교통시설의 빙결 파손 등을 점검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용환경과 자전거 사고예방을 도모한다는 취지이다. 이번 동절기 대비 자전거도로 안전점검은 간선도로 11개 노선과 생활권도로 28개 노선으로 총 39개 노선, 약 76km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노면 균열 및 파손 여부 ▲배수시설 ▲안전펜스, 규제봉 등 주요 안전시설 ▲조명기구 ▲노면표시 등이다.

남원시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시내권 자전거도로 전 구역을 점검하고 단순사항은 즉시 현장조치하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할 계획이다.

이남출/기자



# A

## area

### 영남 I

8 문화매일  
2021년12월 24일 금요일

## 구미시, Dream!! 통합조사팀 '복지소통데이' 운영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교육

구미시에서는 사회복지국 생활안정과 통합조사1·2계 공무원 15명으로 "Dream!! 통합조사팀"을 구성하여 매월 '복지소통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Dream 통합조사팀"은 통합조사 전문팀으로서 매월 '복지소통데이'를 운영하며 복지서비스 신청 조사와 변동 관리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직원 서로 간 업무 컨설팅을 통

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조사 기준을 표준화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결과 통보로 각 사업부서에서 누수 없는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복지소통데이'에서는 지난 22일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교육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내용들을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021년 하반기 확인조사가 10~12월까지 3개월간 실시되고 마무리함에 따라 소득 재산 변동자료 반영을 통한 급여 적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는 한편 보장 중지자에 대한 타서비스 연계(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 및 가족해체가구의 지방생활보장심의를 통한 지원 등의 권리구제 방안을

## 포항시, '경북도 투자유치 1등' 투자유치부문 대상에서 3관왕 달성 쾌거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정명숙 팀장,  
포스코케미칼의  
단체·개인·기업체  
3관왕 달성

포항시는 21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개최된 '2021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 시상식에서 경상북도 투자유치 3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시상부문은 '시·군단체', '개인', '기업체'로 총 3개 부문이며, 포항시는 각 부문에서 포항시, 정명숙 투자유치팀장, 포스코케미칼이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투자유치부문 3관왕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3개 부문 모두 대상을 수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이는 포항시가 지자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시간의 투자유치 공적을 인정받은 결과물이다. 특히, 2020~2021년까지의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이번 평가에서 시·군단체부문과 개인부문 대상 수상은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및 음극재 공장 유치, 에코프로 추가 투

자유치, 지역 내 성장 기업들의 지역 내 선순환 투자 유치 등 총 3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유치 실적이 바탕이 된 결과이다. 또한, 기업체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포스코케미칼은 포항블루벨리 산업단지 내 2,500억 원을 투자해 연산 1만 6천 규모의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을 건립 및 올해 12월 준공했고, 추가로 6,000억 원을 투자해 양극재 공장을 내년 3월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내 착공할 계획이다. 한편, 신성장 산업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포항시는 투자유치 성과에 힘입어 지역 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이차전지·바이오·수소 등의 기업 투자유치 금액은 총 6조 8,000억 원으로 포항시 역대 최대 성과이며, 이로 인해 지역 내 대략 1만 7,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19조 5,000억 원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중식 일자리경제실장은 "포항시가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신성장 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타 지자체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투자유치 실적을 거두고 있다"며, "대규모 투자유치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노이기자/장용수기자

## 울릉군, 2022년도 본예산 역대 최대 2,200억 원 확정

울릉군의 2022년도 예산이 본예산 규모로 역대 최대인 2,200억 원으로 확정됐다.군은 지난 23일 열린 '제2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전년 대비 200억 원(10%)이 증액된 2,200억 원의 2022년도 본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3억 원(9.28%) 증액된 2,15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 원(60.71%)이 증액된 45억 원이다.

분야별로는 ▲문화및관광분야 258억 원 ▲환경분야 178억 원 ▲사회복지·보건분야 241억 원 ▲교통·지역개발분야 254억 원 등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가 410억 원(18.6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 어촌뉴딜300사업에 105억 원(옹포, 태하, 학포, 통구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장승벽, 구암, 학포)에 23억 원, 천부산 민여가시설건립에 10억 원, 능수산 물 내항화물 수송운임지원에 6억 4천만 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23억 원 등이 편성됐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2022년도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주민소득증대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의 일상회복을 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종기자

## 경주시,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파쇄중성자원연구회' 발족

GeV급 고에너지  
중성자빔/양성자빔 국내  
독자적 연구생태계 조성에  
기여

경주시 한국원자력연구원 양성자과학연구단은 국내에 독자적인 고에너지 중성자빔/양성자빔 이용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한국파쇄중성자원연구회'를 22일 온라인(Zoom)으로 출범하였다. 파쇄중성자원은 GeV급 고에너지 양성자빔을 무거운 원자핵을 가진 표적에 충돌시켜 다량의 고에너지 중성자빔을 발생시키는 시설이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과학 기술선진국들은 앞다투어 파쇄중성자원을 경쟁적으로 구축하여 반도체/우주부품, 6세대 이동통신(6G), 미래 자동차, 에너지소재, 극한환경소재, 백신/신약 등 첨단과학기술분야에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도

파쇄중성자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회는 기초과학, 반도체/통신, 우주, 에너지소재, 생명과학, 극한환경, 가속기 등 7개 분과로 구성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유니스트 등의 기관에서 70여명의 회원으로 발족식을 가졌다. 이번 발족식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승일 소장의 환영사, 경주시 김호진 부시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포항가속기연구소 고문이자 포스텍 명예교수인 남궁원 교수, 한국양성자가속기이용자협의회와 한국가속기및플라즈마 연구협회 회장인 노승정 단국대 교수, 한국중성자빔이용자협의회장 정재호 고려대 교수가 연구회 발족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초대회장으로 추대된 한국천문연구원/UST 황정아 교수는 취임사를 통해 "한국파쇄중성자원을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를 확보하고, 새로운 GeV급 고에너지 중성자빔/양성자빔 응용 개발 및 이용자를 확대하는데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승길기자



## 영양군노인복지관, 동절기 대비 물품 키트 '따뜻한 겨울상자' 지원

영양군노인복지관은 21일부터 22일 양일간 지역 내 고령의 독거 어르신 및 기초수급자 분들에게 동절기 대비 물품 키트와 김치를 지원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이번 동절기 대비 물품 키트 지원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겨울을 힘들게 보내야 하는 어르신들을 위

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추운 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각종 동절기 대비 물품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복지관은 지난 21일 동절기 대비 물품 키트와 김치를 지역사회 내 고령의 독거어르신들과 기초수급자 분들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전달했다. 영양군노인복지관은 "연말이 다

가움에 따라 신체적 추위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마음마저 추워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동절기 대비 물품 키트를 지원하게 됐다"며 "어르신들에게 잘 전달돼 이번 겨울도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 영천시, 2022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국내 최초 자매 동반 출전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2022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출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영천시청 태권도단 강보라(여, 22세, -49kg급)와 강미르(여, 20세, -46kg급) 자매가 1위를 차지하며 세계대회 출전을 최종 확정지었다. 두 선수는 지난 11월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 최종 대회'에서 동반 1위로 국가대표 선수 자격을 획득한 데 이어 1차 평가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세계선수권대회 출전하게 됐다. 세계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로 자매가 동시에 출전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지난 도쿄올림픽 태권도 종목 금메달 획득 실패의 이변으로 대한태권도협회는 올해부터 국가대표 선발 최종 대회에서 입상한 체급별 선수 3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평가를 거쳐 각종 국제대회 직전까지

최고 기량을 가진 선수를 선발하는 것으로 국가대표선수 선발 방식을 변경했다. 이번 대회에서 ▲강보라 선수는 대구보건고 오서린 선수를 2대 8로, 한국체대 황예빈 선수를 9대 5로 이겼고, ▲강미르 선수는 서울체고 김주미 선수를 14대 10으로, 수성구청 김보미 선수는 16대 1의 압도적인 점수 차로 물러세우며 2차 평가전 없이 곧바로 세계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시청 태권도단 소속 두 자매 선수가 세계대회 출전 자격을 획득해 매우 기쁘다. 내년 개최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영천시를 널리 알리려기 바란다"며 축하의 인사말을 전했다.

윤영탁기자

다음에서 '온심마켓' 을 검색하세요!  
네이버에서 '영양고향장터' 를 검색하세요!

# 영양군 우수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 온심마켓

https://yyg.go.kr/onsimmarket

문의전화 054-682-6277

영양군로컬푸드

온심마켓



## 부산시, 소상공인 살리는 '동백통'... 운영활성화 해법 찾는다!

부산시는 오늘(23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내년 1월 중 정식 출시를 앞두고있는 부산공공O2O플랫폼 '동백통' 운영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동백통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부산시 주관으로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소비자, 소상공인, 시민단체, 시의회, 학계 등 각 분야 관계자가 참여해 ▲가맹점 모집홍보 전략 ▲소비자 유입 및 사용활성화 방안 ▲민간업 대비 개선·기대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토론회는 의제별 지정토론과 질의응답,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대표들은 동백통의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지난달 연세구 시범운영에 참석한 소비자 및 동백통 가맹점 대표는 실제 동백통 사용 시 불편했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동백통에 대한

큰 관심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부산시는 가맹비·광고비·중개수수료를 없앤 공공배달업인 동백통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윤빈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동백통이 부산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배달중개플랫폼 수수료 감감을 통해 경영부담을 완화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공 판매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며, "민간업 대비 투입자원이 한정적인 공공플랫폼의 성공적인 시장안착을 위해 관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부산시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백통 앱은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11월 업데이트 버전을 출시하였고, 12월부터 연세구 시범 운영을 진행 중이다.

남궁영기기자

## 진주시, '올해의 최고경영자상' 표창 수여



진주시는 23일 오전 시청 시민홀에서 (왼쪽부터) 진주시 대표와 대석정밀 강점석 대표에게 '올해의 최고경영자상'을 수여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한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진주시 최고경영자상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업인을 선정·표창하여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왔다. 올해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한 (왼쪽부터) 대석정밀 강점석 대표(만 60세)는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업체 경영주로 1987년 창사 이래 브로칭 공구 특허, 티에프 드라이빙 기어 기술 상용화 등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주기계공고, 경남자동차고, 경상국립대학교와 산학 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인력 양성

최광용기자



area  
영남II

문화매일

9

2021년 12월 24일 금요일

## 경상남도 한일 8개 시도현지사, 지방회생을 위한 연대 협력 의지 다져



경상도는 23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의 주재로 '제29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한일해협을 사이에 둔 한국의 경남·부산·전남·제주와 일본의 나가사키·야마구치·후쿠오카·사가, 한일 8개 시도현으로 구성된 본 회의는 1992년 제1회 회의를 개최한 이래로 30년간 단 한 번의 중단없이 회의를 거듭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하 권한대행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고영권 제주도 정부부지사, 핫토리 세이타로 후쿠오카현지사, 야마구치 요시노리 사가현지사, 나카무라 후토 나가가현지사, 무라오카 스구마사 야마구치현지사 등 8개 시도현 지사가 참석했다.

회의는 '지방 회생을 위한 포괄적인 마련'과 '도시재생사업 및 매력적인 마을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하 권한대행은 주제발표를 통해 쇠퇴지역의 특성에 맞춘 도시재생 정책과 공동체 활성화, 청년인재 양성 등에 중점을 둔 경남의 도시재생 사업들을 소개했다.

또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시범사업, 예비사업, 본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고, 청년인턴십 운영, 도시재생사 자격제도 등의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 권한대행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효율적인 사후관리와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경우를 공유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정책교류를 위한 교환연수'를 제안했다.

이 날 시도현 지사들은 지방 회생을 위해 지방정부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우호 관계의 지속과 교류 확대를 결의하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하며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한국과 일본은 수도권 과밀의 폐해와 지방 소멸의 위기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일 8개 지방정부의 도시재생과 지방회생을 위한 시책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균형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양국 지방의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일해협 연안 8개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는 1992년 제주를 시작으로 매년 한일 양국 간 윤번제로 개최하고 있고, 환경,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화상회의를 경상남도 주관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내년 회의는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개최된다.

윤남남/대기자

## '통영국제트리엔날레 청소년 아트캠프' 열려

(재)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은 지역 청소년에게 문화예술의 새로운 동향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통영국제트리엔날레 청소년 아트캠프'를 개최한다.

'통영국제트리엔날레 청소년 아트캠프'는 내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통영국제트리엔날레의 일환으로, 지역 청소년에게 기술을 결합한 융복합 예술을 소개하고 예술의 다양성과 확장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디어아트 기술 등을 소개하는 '프로젝션 매핑 캠프'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캠프'를 진행한다. 프로젝트 매핑과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은 미디어아트의 한 기법으로, 창작물 구현에 있어서 과학기술을 결합한 이미지 구현 방식이다.

'통영국제트리엔날레 청소년 아트캠프'는 1월 8일부터 16일(매주 토요일)까지 통영국제음악당 및 통영리스타트플랫폼에서 진행된다. 1월 8일부터 9일에는 미디어아티스트 윤제호와 박선유가 프로젝션 매핑을 소개하고 기법을 강연할 예정이며, 1월 15일부터 16일에는 미디어아티스트 김은경이 스톱모션 기술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18세부터 18세까지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통영국제트리엔날레 청소년 아트캠프'는 미디어아트의 원리와 제작 등을 소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현대예술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참가대상은 통영에 주소를 둔 청소년 40명(프로젝션 매핑 캠프 20명,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캠프 20명)이며, 참가 지원은 23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국제트리엔날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영국제트리엔날레는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국제 다문화예술제로, 2022년 3월 18일부터 통영 시내 일대에서 열린다.

강영훈기자



## 고성군, 2021년 '경상남도 BEST 친절공무원' 최우수상 수상

고성군은 12월 22일 '2021년 경상남도 Best 친절공무원 콘테스트'에서 교육청소년과 백수연 주무관, 한승욱 주무관, 민원봉사과 김태완 주무관으로 구성된 팀이 '친절의 세포들'이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BEST 친절공무원'은 매년 경상남도가 주최하는 행사로, 친절공무원을 선발하고 우수 친절사례를 공유해 공직사회 전반에 친절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개최됐다.

올해 심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발표 내용과 영상 내용을 기준으로 비대면 서면 심사했으며, 도내 20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고성군 참가팀이 베스트 친절공무원으로 선발

돼 도지사 상장과 시상금 100만 원을 받는다.

최우수상을 받은 '친절의 세포들'은 최근 방영한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드라마(웹툰 원작)를 각색해 친절의 세포들이 민원인을 대할 때 필요한 세 가지 요소인 경청, 공감, 미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결하고 위트있게 표현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열린 콘테스트에서 고성군이 장려를 수상한 데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받아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친절 분위기 확산과 군민들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 의령 벽화산성고분군에서 가야 최고지배층의 황혈식석실묘 나와

### 2021년도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의령 벽화산성 고분군 1호분 발굴조사



의령 벽화산성고분군 1호분이 가야 무덤 형식 중 하나인 황혈식석실묘임이 밝혀졌다. 석실묘의 규모와 입지로 보아 벽화산성고분군 1호분의 피장자는 6세기 의령지역 최고 지배층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의령 벽화산성고분군 1호분 긴급발굴조사는 복원기금에서 후원하고 문화재청에서 시행한 2021년도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사업에 선정되어 발굴조사하게 되었다. 이번 발굴조사는 벽화산성고분군의 정확한 성격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보존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1월부터 경남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령 벽화산성고분군은 의령을 중리와 하리 사이에 있는 해발 340m의 벽화산 정상에 에워싸고 있는 벽화산성 아래 평지상의 능선 정상부에 위치하는 가야시대 고분군이다. 능선의 정상부 가까이 입지한 조건은 인근의 의령 중동리고분군과 매우 유사하며,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특이한 입지 환경을 가지고 있다.

벽화산성고분군은 지표조사를 통해 1994년부터 알려져 왔는데,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과거에는 7기의 대형 봉토분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3~4기만이 확인된다.

긴급발굴조사 대상고분인 1호분은 직경 20m 내외이며 높이 2.5m의 대형봉토분이다. 봉분 중앙은 도굴로 인해 크게 함몰되어 양단벽쪽이 드러나 있으며 북단벽측에 1개, 남단벽측에 3개 등 총 4개의 개석이 노출되어 있을 정도로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다.

1호분의 봉토는 적갈색 점질토와 도광 굴착과정에서 배출된 황갈색 풍화암반을 섞어 쌓아 올렸으며, 경사면 아래쪽에 해당하는 동쪽은 할석을 쌓아 만든 구획석을 축조하여 보강하였는데, 구획석과 함께 다량의 할석을 이용하여 보강하고 있다. 봉분의 가장자리로는 호석을 둘러 봉분을 보호하고 묘역을 설정하였다.

매장주체부는 세장방형 현실 중앙에 연도를 설치한 전형적인 가야지역의 특징을 보여주는 황혈식석실묘로 확인되었다. 도굴로 인해 현실 천정 1매와 연도 천정 1매만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벽석은 일정한 크기의 할석을 이용하여 쌓아 올렸으며, 도굴로 인해 동장벽은 석실 내부로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 나 서장벽은 원상을 잘 유지하고 있다.

석실의 규모는 바닥을 기준으로 길이 640cm, 너비 220cm이며 최대 높이는 190cm이고, 천정의 너비는 100cm이다. 1호분의 평면적은 14.08㎡로, 가야지역 세장방형 석실 중에서는 함안 남문외고분군\* 6호분(길이 740cm, 너비 280cm, 잔존 높이 160cm, 평면적 20.72㎡) 다음으로 큰 규모이며, 남문외고분군 11호분(길이 700cm, 너비 200cm, 높이 210cm, 평면적 14.0㎡)과 유사하다.

\* 함안 남문외고분군은 최근 말이산고분군 이후 시기의 아라가야

강영훈기자

## '꽃구름 동동 위양생태마실' 밀양시 2022년 생태관광 공모사업 선정

밀양시가 '2022년 생태녹색관광 육성 지자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발표심사를 거쳐 전국에서 부산 북구, 강릉, 남원, 밀양 4개소가 선정됐으며, 시는 향후 국·도비 1억 6,24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전문컨설팅과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생태를 테마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는 '꽃구름 동동 위양생태마실'이라는 사업으로 현재 밀양에서 가

장 핫한 지역 중 한 곳인 위양지 일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팝, 남생이, 후투티, 원앙 등 풍부한 생태자원을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배서 발간과 지역 마을 조직인 '위양지 사람들'의 역량 강화로 지속 발전 가능한 관광생태계를 조성하게 된다.

또한 플로깅 캠페인, 반려동물 캠프 등을 추진해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위로하고, 밀양아리나와 가산 저수지를 연계한 걷기대회를 통해 비대면 관광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양기규 관광진흥과장은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다양한 콘텐츠와

과 지역 고용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정밀가공과 밸브 생산 전문업체인 대석정밀 강점석 대표(만 63세)는 1990년 회사 설립 후 특수세질과 대형밸브를 가공할 수 있는 장비와 다양한 톨 검사장비를 자체 개발해 생산 노하우와 기술력을 축적해 나가고 있으며 진주시 수출기업협의회, 경찰서 의사협력 자문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단체에 소속하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올해 최고경영자상 수상 기업에는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업지원정책의 우선 수혜 등 특전이 부여되고 경남은행과의 협약 체결로 금융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이날 최고경영자상을 수여한 조규일 시장은 "오늘 수상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실"이라며 "최고경영자상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해주시길 믿고 수상하게 되어 뿌듯하고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중심묘역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함안 말이산고분군으로 통합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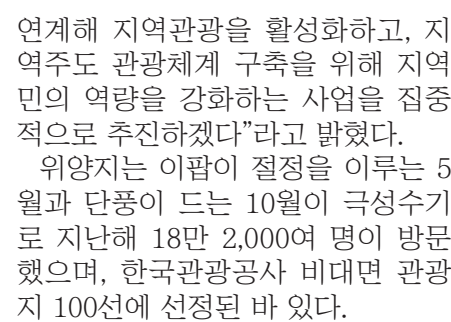
유물은 대부분 도굴되었는데 조사과정에서 일부 수습되었다. 대부분 토기류로 아라가야, 대가야, 소가야계통의 토기가 확인되고 있어 이들 지역과 교류하였음을 알려준다. 또한 지정학적으로 수로와 육로를 통한 제가야지역과 교류하기에 좋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어 문물 교류의 통로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령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문화재청 긴급발굴조사 성과와 함께 주변에 위치한 중리, 하리, 상리, 중동리 일대에 위치한 고분군들의 분포를 파악하여 추가적인 훼손방지를 위한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발굴조사 성과는 오는 24일 오후 15시에 발굴현장(의령군 의령읍 중리 산108번지 일원)에서 학술자문회의와 현장공개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과 의령군은 앞으로도 비지정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학술적·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적들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발굴조사를 통한 역사문화 연구 지원에 나갈 것이다.

강영훈기자



남궁영기기자

밀양시





area

호남 I

10 문화매일 2021년 12월 24일 금요일

# 전라북도 3차 법정문화도시 지정 쾌거, 전북 문화자존의 시대 결실

## 제3차 법정문화도시로 익산시 선정, '22년부터 5년간 200억 규모로 문화도시 조성사업 본격 추진

전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법정 문화도시'에 익산시가 최종 확정되어 국비 100억을 포함한 200억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지역 문화 인프라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작년 2차 문화도시 완주군 지정에 이어 익산시까지 3차 문화도시로 지정, 전북만의 특색있는 문화예술 운영 기반이 마련되어 전북 문화 자존의 시대를 열어가 갈 수 있게 되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

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22년까지 4차에 걸쳐 문화도시 지정할 계획으로 전북에서는 2차 문화도시에 완주군이 선정되어 지원 받고 있다.

금번 지정된 익산은 역사전통중심형 지정분야로 세계유산도시, 대한민국 4대 고도(古都)로 대표되는 '백제'와 일제강점기 철도중심지인 '근대이리' 등 어느 시대의 역사에만 집중하지 않고 마을과 마을의 역사, 도시와 사람의 역사에 주목하며 도시의 정체성을 재인식하겠다는 역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주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는 예비사업기간 동안 지역의 문화·예술·시민단체 등 다양한 활동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익산문화도시추진위원회(위원장 성제환)와 문화도시시민추진단(단장 문이화)이 주축이 되어 예비문화도시 선정 이후 워크숍과 공청회, 매월 '갈매이 회의'를 통해 시민들과 문화도시 추진과정을 공유하고 조성계획의 방향성 및 5개년 계획 수립, 시민 제안사업에 대한 심사와 평가, 문화도시 시민 홍보 등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에 시민들과 함께하며 법정 문화도시 지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전북도는 그간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지역발전 전략으로 설정하고 도내 시군들과 함께 지역 사회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도시재생사업과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 시군 도시재생 부서와 연계 협력사업을 통해 13건의 협력사업을 발굴하였다

또한, 완주군은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6개 사업 33개 프로그

램을 진행 문화도시사업 기초체계 확산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공동체문화 도시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전북도 김성관 문화예술과장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3차 법정문화 도시에서 고베를 마신 고창군과 4차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된 군산시가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법정 문화도시 경험지식을 공유하여 내년에 4차 법정문화 도시에 선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승일기자

남원시, 생태녹색관광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

남원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2년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에 '백두대간 생태정거장 서어나무숲' Eco Station이 최종 선정, 국비 1억 2천여 만원을 포함해 전체 사업비 2억 4천여 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생태자원을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생태관광콘텐츠 개발, △관광상품 브랜드화의 선순환을 구축 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마을길 안내체계 구축, 산책로 정비,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남원시는 생태녹색관광의 주요 사업대상지인 운봉의 행적마을 서어나무 숲과 삼산마을 소나무 숲,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지리산 허브밸리에서 2022년부터 3월부터 생태를 테마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주민과 함께 △숲에서 멍 때리기 △숲 속 북카페 △자연소리 체험 △오감경기 △숲 속의 향기요법 등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인문학적 이야기를 결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남원시 양인환 관광과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운봉 서어나무 숲을 기반으로 남원이 한국을 대표 할 만한 생태관광브랜드로 육성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의 주요 대상지인 운봉 서어나무 숲은 200년 전에 마을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인공 숲으로 100여 그루의 나무가 있으며 숲속 온도는 여름에도 15도 안팎이라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기에 최적이며 2000년에는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남출기자

## 전주시, '탄소중립 교육' 시민강사 양성

전주시가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탄소저감 생활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시민 22만 명을 대상으로 시민인식 전환교육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교육을 이끌 시민강사 20여 명을 양성했다.

시는 23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2050 탄소중립 시민강사 양성과정 수료식'을 열고, 총 23명의 탄소중립 시민강사를 배출했다.

지난 10월 시작한 탄소중립 시민강사 양성과정은 이론 30시간, 현장 견학 2시간, 강의시연 8시간 등 총 20회, 40시간에 걸쳐 운영됐다.

교육생들은 탄소중립 시민강사 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탄소중립에 대한 이론과 세대별 강의법, 커뮤니케이션 기법 등을 학습했으며,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동 주민센터와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등에서 찾

아가는 탄소중립 시범교육을 대면 및 비대면으로 총 468명에게 32회에 걸쳐 진행하기도 했다.

향후 시는 시민강사 양성과정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심화과정 교육을 열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한 심화학습을 실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강의법과 수요자 맞춤형 교육법 등을 교육한 뒤 '전주시 탄소중립 시민강사'로 위촉할 방침이다.

위촉된 탄소중립 시민강사는 오는 2024년까지 시민 22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단계적 시민인식 전환교육에 투입된다. 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노인복지관 등에서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 연령별 맞춤형 탄소중립 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전주시어린이집연합회, 전주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 전주시 상인연합회,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구, 전주시여성

단체협의회, 4대 종단,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전주시녹색어머니연합회,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전주시 공동체협의회, 전주시체육회 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들의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했다.

또 지난 12월 초 2차례에 걸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했으며 내년 2월에 개최되는 3번째 원탁회의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주시 맑은공기에너지과 관계자는 "전주 곳곳에 탄소중립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모든 과정에 성실하게 임해준 수료생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인식전환과 탄소저감 실천활동에 부실함이 되는 시민강사가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 완주 이서면, 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선정

완주군 이서면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23일 완주군은 이서면의 '오목 소소한 행복 골목길 조성'이라는 사업명으로 공모를 진행,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지역주민 토의로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을 선정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연계·발전시킬 수 있고, 주민 참여 확대와 주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완주군은 오목마을의 주출입인 낙후된 골목길을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로 개선하고 리사이클링 플라스틱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또한, 주민 참여 프로젝트를 운영해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재생 예비사업 지속추진과 주민참여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역량강화로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활용가능한 마을활동가, 코디네이터 및 지역주민 리더를 양성하고 마을관리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마을리더 양성으로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협의체 인적자원을 지역재생의 근간으로 활용해 향후 도시재생 사업의 중추적 역할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추후 완주군은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선정된 이서면에 대해 도시재생 예비사업 완료 후 분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할 계획이다.

김광수기자

## 호남의 시작 '익산 황등제', 위상 회복 첫걸음



호남의 시작 '익산 황등제', 위상 회복 첫걸음

익산시가 황등제의 성격 규명과정에서 학술훈을 위한 학술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황등제의 위상을 회복하는 첫걸음을 내딛는다.

시는 오는 23일 익산시가 주최·(재)전북문화재단이 주관해 "한국 고대수리시설과 익산 황등제"를 주제로 '익산 황등제 성격규명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 심포지엄은 오는 23일 오후 1시30분부터 전북문화재단 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우선 ▲1주제 - 한국 고대 수리시설 현황과 특징(총북대 성정음) ▲2주제 - 영남지역 수리시설(우리문화재단연구원 이보경) ▲3주제 - 전남 지역 선사·고대 수리시설(나라문화연구원 고경진) ▲4주제 - 전북지역 수리시설 조사성과와 의의(전북문화재단 구원 권정혁)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발표 후에는 전북문화재단연구원 최완규 이사장을 좌장으로 김재홍(국민대), 이영철(대한문화재단연구원), 이흥종(고려대) 등 지정토론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익산 황등제는 고대부터 농업생산력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물을 공급하던 수리시설로 김제 벽골제, 정읍 놀제 등과 함께 호남의 3대 제호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황등제는 지난 1935년 일제강점기 완주 경천저수지가 축조되면서 저수지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농경지로 변화됐다.

최완규 전북문화재단연구원 이사장은 "황등제의 축조시기는 문헌상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최근 남아있는 일부 제방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수습된 목재와 흙의 자연과학적 연대 측정 결과 BC4~3세기 전후에 축조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한반도 최고(最古)의 수리시설로서 황등제를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익산 고대문화의 성립과 발전에 기반이 된 황등제를 복원·정비하기 위한 시작점이다"며 "나아가 한반도 최고의 수리 시설, 호남의 시작 황등제의 위상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숙과, 여류 남원에서 만나다

남원시 | 남원에촌 |

| 백두대간 트리하우스 | | 서도역 옛 기차길 |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



해남군 선제적 진단검사로  
코로나19 확산 차단 효과거둬

해남군이 관내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코로나19에 대해 선제적 진단검사 등 발빠른 대응으로 조기에 확산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은 지난 16일 관내 목욕장 첫 확진자 발생 이후 22일까지 총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특히 19일 문내면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관내 3개소 어린이집·유치원 원아 7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또한 목욕장 이용자 5명과 가족 2명 감염 사례까지 발생되어 백신 미접종자인 소아·청소년층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해남군에서는 이번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즉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과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발빠른 조치로 확산을 차단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21일부터 22일까지 군민광장에 이동선별검사소를 설치한 결과 이틀간 2,365명의 군민들이 진단검사 받은 것을 포함해 16일부터 22일까지 총 1만 6,202명이 검사를 받았다.

또한 19~20일에는 문내면과 화원면에 이동선별검사소를 설치해 면민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6개소 원아·학생 및 교직원, 종사자 등 4,322명에 대해 선제적 진단검사를 완료했다.

23일까지 관련한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23일 발생한 확진자 2명은 타지역민이 해남에서 확진된 것으로 확인되어 확산세는 멈춘 상황이다.

군은 이번 발생한 코로나19의 경우 모두 타지역에서 방문했거나 타 지역민을 접촉하여 비롯되고 있는 만큼 동선이 겹칠 경우 증상여부에 관계없이 3일 이내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을 것과 가벼운 감기증상이 있을 경우에도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찾지 전 반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전 군민이 합심하여 사전 진단검사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조기에 코로나 확산을 저지할 수 있었다"며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만큼 타지역 방문 등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영욱기자

## 무주군,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 이웃사랑 화제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는 23일 농민의 집 3층 조리실습실에서 쌀소비촉진 및 소외계층 떡국떡 나눔행사를 갖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날 생활개선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떡국떡 자르기 및 포장(2kg/1상자)을 함께 하면서 이웃사랑의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해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에게 떡국떡을 나눠 따뜻한 군민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몸소 실천했으며, 회원 간의 화합 분위기도 조성했다.

오후에는 떡국떡 300상자를 지적장애인시설인 부남면의 하은의 집에 기탁 및 읍면별로 주변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에 직접 방문해 전달, 주목을 끌었다.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 강신정 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6개 읍면 440명 회원들의 심시일반 한마음이 돼 동참하면서 이번 행사를 뜻깊게 추진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생활개선회는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보는데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생활지원팀 민선희 팀장은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는 올해도 나눔·봉사, 자연친화 활동,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 과제교육, 현장견학 등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농촌 지역 여성리더 양성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우기자

#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최우수 관광마을 선정기념 사진전 개막

반월박지도 섬 주민들 축하 속에 개막. 오는 2022년 1월 31일까지 전시 예정

신안군은 2021년 12월 23일 '퍼플섬'으로 잘 알려진 안좌면 반월도의 어민 쉼터 갤러리에서 '퍼플 피플(Purple Peole)'사진전 개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신안군수, 전남도의회 정광호 농수산 위원장, 신안군의회 김혁성 의장을 비롯하여 안좌면 사회단체장과 퍼플섬 주민이 참석했다. 개막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발열 검사를 철저히 하고 참석 인원을 49명 미만으로 제한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사진전은 12월 2일 제24차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에서 '제1회 유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Best Tourism Village)' 선정 사업에 반월·박지도가 지정된 것을 기념하는 전시회로, 퍼플섬 주민을 비롯한 여행객, 섬 풍경을 중심으로 4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퍼플섬 주민이자 반월도 이장으로서 활동하는 장종언씨는 "천혜의 자연·생태·민속의 가치를 담은 섬 문화와



보라색 섬마을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각국에서 그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 받았다"면서 유엔세계관광기구의 최우수 관광마을 지정은 지역사회의 큰 경사라고 언급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섬이 가진 생태·자연 환경과 식생에서 비롯된 컬러마케팅으로 보라색 섬마을을 조성한 퍼플섬 사례는 지자체와 섬 주민이 뜻을 모아 이룬 결실로, 현재 신안군에

서 추진 중인 우이도, 옥도, 선도 등 가고 싶은 섬 사업 대상지 역시 제2, 제3의 최우수 관광마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기석기자

# 장흥군, 이봉준 서예가의 붓끝에 담긴 '묵향의 시간'

코로나 시국에도 멈출 수 없는 치인 이봉준 서예가의 제11회 장흥역대문인시가선전, 국담 임희중 선생의 현창서예전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장흥군민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올해로 벌써 열한 번째를 맞이하는 장흥역대문인시가선전은 조선 명종 때 훌륭한 학자이자 교육자이면서 서인이었던 국담 임희중 선생의 서예전이다.

국담 임희중 선생은 장흥 임씨의 시조인 임호의 12대 손으로 학문에 뛰어났으며 그가 남긴 유작에는 398수의 유시와 문장이 있다.

이번 서예전에서는 국담 임희중 선생의 작품 가운데 한시 72점을 이봉준 서예가의 '치인체'로 만나 볼 수 있다. 작가의 혼을 불어넣은 서체, '치인체(痴人體)'는 서예의 오체(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에 능수능란한 이봉준 서예가만의 특별한 서체를 일컫는다.

이번 전시회는 옛 선조들의 정신을 통해 코로나 시국도 극복한다는 염원을 담아 내었고, 작가의 투박한 삶과 절제미까지 엿보이는 서예 작품들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봉준 서예가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94명이나 되는 장흥역대문인들을 발췌·정리하였으며, 이 문인들의 한시를 지난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현재까지 서예 작품화하여 전시하고 있다.

한편 이봉준 서예가는 제4회 강암서예대전 현창회호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제25회 대한민국서예전람회 우수상(1위)을 수상하는 등 국

내 외 각종 서예대전에서 8번의 대상과 3번의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2019년 자랑스런 장흥인 대상(장흥투데이)를 수상했고, 같은 해 '신한국인대상(시사투데이)'까지 수상하며 전남 장흥을 넘어 한국 서예계의 한 획을 긋는 서예가로서 입지를 굳혔다.

장흥역대문인시가선전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장기 프로젝트로 타 지역에서는 만나 볼 수 없는 특별한 서예 작품전시회이며, 지난 2011년에는 경상북도 청송군 백강미술관에서 기획초대전, 다음해 2012년에는 여수시문화원의 초대로 '임란정유재란한시선전'을 여수거북선축제에서 선보이며 충무공 이순신과 장흥 출신 한시 작가들의 심정을 서예작품으로 재조명했다.

소설가 한승원은 이봉준 서예가의 치인체에서 "오묘한 들이쉴 숨과 내쉴 숨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고, 그의 글씨에서 "시간이 있다"라고 표현했다. 여기서 "시간은 신(神)의 또 다른 얼굴이고 역대 서예가인 김생, 원교, 추사, 창암의 글씨에도 시간이 있다"라며 이봉준 서예가의 치인체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치인의 글씨가 보이는 잔치를 한 해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행운을 가진 장흥은 행복한 고장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장흥군 관계자는 "임희중 선생은 조선 명종 때 생원, 진사시에 모두 합격한 유능한 인재였으며 문장에 뛰어난 당대의 석학으로 그분의 유시 72점을 이봉준 서예가의 작품을 통해 다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

번 전시회를 통해 "임희중 선생의 시가 서예 작품을 통해 세상에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예향 장흥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고영전 장흥문화원장은 "이봉준 서예가는 항상 청년과 같은 마음의 많은 지역민들의 귀감이 되고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 하는 등 장흥문화의 실상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동시에 장흥의 위상을 드높이는 의미 있는 전시회가 될 것이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담 임희중 선생의 작품 역시 서예작품으로 다시 만나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장흥군의회 관계자는 "이봉준 서예가는 다양한 전시회 개최와 후학을 배출하는 등 지역문화에 창달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며 "이번 서예 전시회로 문림의향 장흥의 서예를 널리 알고 발전시키는 소중한 자리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봉준 서예가는 장흥군 만수리 출신으로 2019년 '올해의 신한국인대상'(시사투데이)으로 선정됐으며, 2019년 '자랑스런 장흥인 대상'(장흥투데이), 제4회 강암서예대전 대상(상금1,000만 원)과 제25회 대한민국서예전람회(국전) 우수상(공동1위)을 수상하고, 제8회 김생전국서예대전 대상, 제22회 국제현대미술창작전 대상(일본 동경), 제20회 신동아현대미술대상전 대상(일본 동경), 제10회 한반도미술대전 종합대상(강원도지사상), 제14회한라서예전람회 대상(제주도지사상) 등 국내

외 각 서예대전에서 대상 8회, 우수상 3회를 수상하는 등 화려한 수상 경력과 16회째의 개인전, 한중일 문화인서예전 등 70여 차례의 그룹전을 가졌다.

주요 저서로는 '서법대관', '위비 의서법예술'과 국역 '전방선생문집', '만수재유고', '제암집' 등이 있다. 현재 사)한국서가협회 초대작가, 재)강암서예대전 초대작가, 전라남도 서예전람회와 한라서예전람회 등 전국 초대작가로 활동 중이다.

김장길기자



김영안기자

## 해남군, 2022년 공공일자리 참여자 모집

해남군은 2022년 1차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12월 22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1인가구 120%)이하, 주민등록세대 기준 재산(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등이) 3억원 미만인 군민이다. 사업별 모집 인원은 ▲청년 일 경험드림 40명 ▲희망 꽃단지 조성 청년매니저 운영 14명 ▲공공근로 155명 ▲지역공동체일자리 18명 등 총 227명으로, 근로기간은 내년 2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이다. 단, 청년 일 경험드림과 희망 꽃단지 조성 청년 매니저운영 사업은 청년 일자리 시책사업으로 9월 30일까지 8개월 동안 근로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내년 1월 5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해남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해남군일자리지원센터(온라인), 소통넷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해남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농가의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내년에도 마늘·양파 수확기인 5월과 6월, 9월 이후 배추모종 정식기, 고구마 수확기, 절임배추 시기 등 농가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는 공공근로일자리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양영욱기자

# 편(fun)시티 광주광역시, 관광에서 답 찾는다

광주광역시는 23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1년 제2차 관광산업 활성화위원회를 열고 '편(fun)시티 광주' 조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위원회는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 주재로 최미정 광주시의원, 이용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관, 김상목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남성숙 광주관광재단 대표, 강신겸 전남대 교수 등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신규 관광정책과 제7차 광주권 관광개발계획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편시티를 '도시 곳곳에 즐길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넘치는 관광도시'의 독특한 매력과 품격을 갖춘 문화 일류도시'로 정의하고, 내년 관광정책 방향으로 ▲빛과 예술, 팬들의 도시 ▲구석구석 관광도시 ▲축제가 일상인 도시 ▲임소문으로 찾는 도시 ▲관광하기 편한 도시 ▲관광산업 탄탄도시 등 6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먼저 광주다움을 담은 '빛과 예술, 팬들의 도시'를 조성한다. 금남로공원에 설치된 금남나비정원을 시작으로 양림동, 광주충전역까지 미디어

아트 창의벨트 구역을 확장하며, 내년 2월 개장을 앞 둔 미디어아트 플랫폼과 5·18 민주광장의 빛의 분수, 지식유원지에서 무등산으로 이어지는 광주·전남 남도달밤 예술여행지 사업을 통해 체류형 야간관광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광주가 선정한 '대한민국 예술여행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굳히기 위해 광주시 청소년수련원을 신세대 예술여행 거점으로 리모델링해 가족단위 관광객과 국내외 청소년들의 교류형 체험관광 거점으로 활용한다.

지역 출신 스타인 BTS 제이홉의 조형물이 위치한 K-POP스타거리는 미디어파사드와 버스킹공연이 어우러진 팬즈으로 구성하고, 송정역과 ACC. e스포츠경기장을 연결하는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도시 곳곳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구석구석 관광도시' 실현을 위해 월봉서원 선비문화 체험복합관 건립과 삼무지구 국제회의 복합지구 인접지인 서창한옥 마을 일대를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도 역점 추진한다. 연중 '축제가 일상인 도시'를 만들

기 위해 총장축제를 글로벌 총장월드 페스티벌로 확대 개최하고 여행객과 시민의 문화·관광·축제의 장이 될 총장상상큐브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소문으로 찾아오는 도시'를 위해 대표굿즈(goods)를 개발하고 방송사 협업으로 유명 연예인과 함께하는 광주관광 불임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광주시민 로컬투어 아카데미도 새롭게 선보인다.

이 외에도 수어 등 디지털가이드와 휠체어 2석을 확보한 무장애 시티 투어버스 운영, 여행자플랫폼(쉼터) 조성,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과 관광기업지원센터 유치 등을 통해 관광산업 경쟁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매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제7차 광주권 관광개발계획이 공개됐다. 계획에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의 광주 관광개발 여건과 실행전략 및 추진과제를 담았다.

'모두가 행복한 문화예술 스마트관광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맛과 멋, 의료움이 숨 쉬는 관광도시 ▲유네스코 유산을 품은 생태관광 ▲

시 ▲스마트 관광도시 ▲넥스트 투어리즘, 산업관광도시 등 4대 전략과 12개 세부 추진과제에 6000억원의 투입해 광주 관광인프라 확충·연계 및 관광자원 개발하고 관광도시로 도약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위원들은 광주관광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해 즉각적인 관광객 유입효과를 낼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 독특한 관광상품 개발과 임소문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아울러 관광이라는 종합서비스 완성을 위해 아시아문화전당, 광주관광재단과 문화재단 등 유관기관·단체는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모아 관광정책 발굴과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은 "우리시의 매력이 잘 알려지지 않아 관광객 방문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방문 만족도는 광역지자체 중 1위로 나타났다"며 "편시티 관광 정책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광주의 숨은 관광지를 잘 알린다면 분명 떨지 않은 미래에 천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 A

## area 강원/충청

12 문화매일 2021년 12월 24일 금요일

### 철원군 가족과 연인이 함께하는 고석정 경관조명 설치



철원을 대표하는 관광지 고석정에 힐링의 빛으로 물든다.

철원군은 12월 24일부터 2021년 2월 중순까지 고석정 경내에 다양하고 화려한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매일 오후 5시 30분부터 12시까지 무료로 개방하여 운영한다.

입격경 동상이 있는 격정광장은 원형풍차, 꽃마차, 호박마차, 꽃나비 나무, 루돌프사슴과 마차, 꽃사슴, 프로포즈, 하트자, 천사날개자 등 22여종의 다채로운 조형물이 설치되어 볼거리를 제공한다.

철원의 겨울은 칼바람이 뺏속까지 파고들고, 추운 날씨 탓에 잔뜩 움츠러들지만 땅거미가 지면서 형형색색의 불빛들이 환하게 밝혀주고 있는 고석정에서의 야간여행은 몸도 마음도 따스하게 녹일 것으로 철원군은 기대하고 있다.

이현중 철원군수는 "연말연시를 맞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군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과 낭만을 선사하기 위해 고석정 격정광장을 많이 찾아 달라"며 "겨울밤 연인들은 반짝이는 사랑을 가족들은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세나기자

### 모든 도시는 문화로 특별하다!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서 제1회 문화도시 박람회 개최

모든 도시는 문화로 특별하다! 대한민국 첫 법정 문화도시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들의 첫 번째 축제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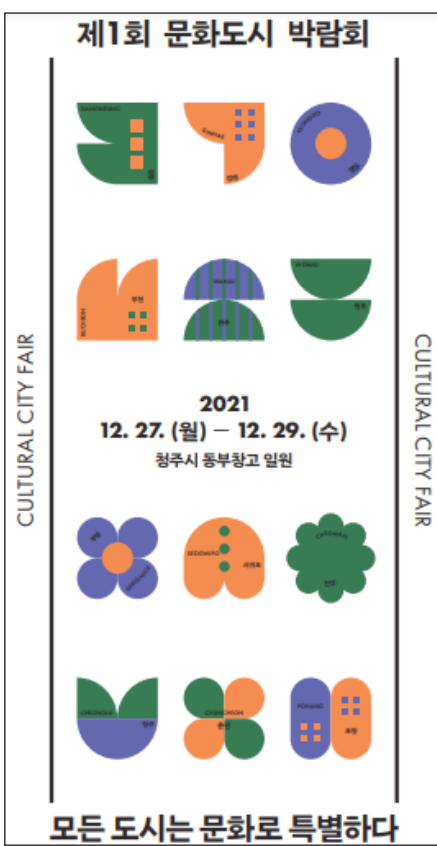
청주시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문화도시센터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동부창고 일원에서 '제1회 문화도시 박람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문화도시협의회가 주최하고 청주시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이번 박람회는 대한민국 첫 법정 문화도시 지정 후 본격화된 1·2차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새롭게 지정되는 3차 문화도시와 4차 예비문화도시 자문 등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모든 도시는 문화로 특별하다'를 주제로 사흘간 1·2차 문화도시 12곳의 홍보전시를 비롯해 문화도시 정책 포럼, 지역별 문화도시 성과공유 쇼케이스, 문화도시 진흥 유공 표창 등이 진행되며 28일에는 이번 발표된 3차 문화도시와 4차 예비문화도시 컨설팅이 집중 운영된다.

전국의 문화도시들이 함께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백신 접종을 마친 사전 접수 인원만이 참여하게 되며, 정책 토론회와 성과공유회는 지역문화진흥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청주시와 청주문화재단은 "대한민



국 첫 법정문화도시로서 대한민국의 첫 문화도시 박람회 주관도시가 돼 더없이 기쁘고 설렌다"며 "이번 박람회가 문화도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꿈을 함께 기록해가는 자리이자 모든 도시가 가진 각자만의 특별함을 발견하고 그 빛을 더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개최소감을 전했다.

고정화기자

### 충남농업기술원 지방농촌진흥기관 홍보분야 전국 1등

#### 농진청 평가서 전국 각도·특광역시 지방농촌진흥기관 중 최우수 기관상 수상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지방농촌진흥사업 홍보실적 평가에서 전국 1위인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농업기술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농업·농촌의 가치 공감 확산과 수요자 중심의 농업기술 제공 등 탁월한 홍보분야 업무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 한 해 실적을 보면 TV 등 언론

홍보 2515건 제공과 함께 농촌진흥청 및 15개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수준 높은 농업인 교육·홍보 영상도 제작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해당 영상을 한국농업방송을 통해 전국 방송으로 확대시켰으며, 벼, 고추, 딸기 등 10 품목 위주로 처음 시도한 전국 농가 대상 대규모 기술 강의도 성공을 거둬 농업인 실용교육 성과 부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위해 도 농업기술원은 최고 품질의 교육영상 제작은 물론 송출을 위해 준비작업과 예산지원 방법, 방송국 섭외 등을 세밀하게 준비했다.

특히,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은 코로나19로 단절된 상황에서 방송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로, 방송국 추산 한 해 전국 시청 인원이 720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울러, 뉴미디어를 활용해 동영상 강의 홍보영상 65편을 자체 제작·홍보함으로써 구독자 수를 100배 이상 확대하는 등 농촌진흥사업 홍보의 대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뉴미디어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영상매체를 통해 충남지역특화작목 홍보와 방송국 섭외 기획보도를 적극 추진해 정책소통 협업 활동 부문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홍기흥 도 농업기술원 홍보 담당자는 "충남에서 제작한 동영상 기술 강의가 전국농가에 제공되는 첫 사례로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비대면 시대에 동영상 홍보·교육의 대변환 시도가 농촌진흥사업추진과 농업교육에 유효했고 자신감을 얻었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최정근기자

### '위기를 기회로' 음성군 재정규모 광폭 성장

#### 공모사업 대거선정, 2018년 대비 국고보조금 93.9% 약2배 증가

음성군이 '2030 음성시 건설'의 기틀 마련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이 3년 전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자체사업 기준으로 2019년 727억원, 2020년 900억원, 2021년도 1010억원, 2022년도 1191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지난 4년간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도 총사업비 기준으로 171건에 6,400억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국도비를 포함한 외부재원으로 4,840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군이 교부받은 국도비 보조금은 2018년 1780억원에서 2021년에 3452억원으로 1672억원이 증가하며, 약 93.9%의 증가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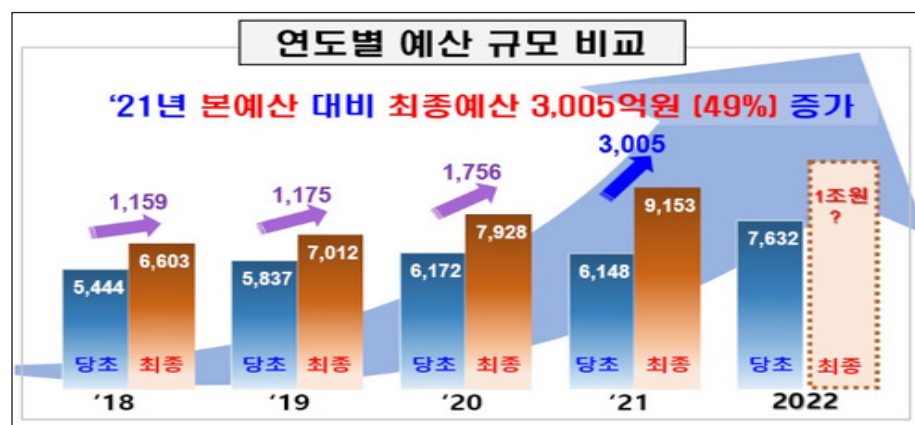
광폭 성장한 음성군의 재정 규모는 이 같은 성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앞서 군은 지난 20일 내년도 본예산이 763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군의 지난 4년간 본예산 규모를 보면, '18년 5444억원, '19년 5837억원, '20년 6172억원, '21년 6148억원

으로, '22년에는 '18년도보다 2188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증가율은 40%에 달한다.

또한, 최종예산 기준으로는 '18년 6603억원, '19년 7012억원, '20년 7928억원, '21년은 9153억원으로 '18년 대비 '21년은 2550억원이



증가해 무려 1조원에 근접했으며 그 증가율은 39%에 달한다.

특히, 2021년 회계연도 중 예산증가액은 300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49%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군이 예산확보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과 선제적 대응 등 국도비 등 외부재원 마련을 위해 전력을 기울인 결과로 평가된다.

그간 음성군의 재정규모의 성장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지난해 군은 집중호우로 17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피해복구비 일부를 교부받았으나, 집계되지 않은 농로나 세전 등 소규모 피해액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등 열악한 군 재정현황에서는 피해복구비 재원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AI 가축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또한 재정운용의 부담을 주었다.

상반기에 집행예정인 사업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는 등 집행시기별로 단계적 편성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집행잔액과 반납액을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주요 투자사업에 선별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기도 했다.

군은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국가공모사업 등 정부예산 확보에도 공을 들였다.

이를 통해 군은 지난해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복구를 마무리하고, 자연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SOC 사업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군민의 여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생활밀접형 SOC사업도 대거 추진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부예산확보를 통해 2030 음성시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강원도 2021년도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개최

강원도가 주최하고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가 주관하는 '2021년도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오는 24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당초 대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전환하였다. 도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유튜브 채널에 송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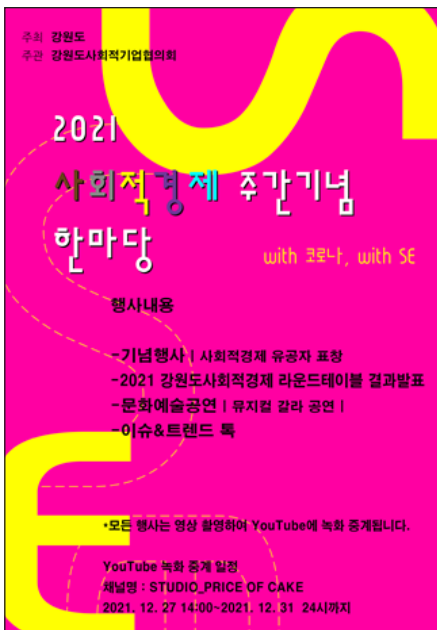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는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업체트워크 구축으로 연대와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행사로 2015년 처음 개최하여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주요 행사로는, 도내 사회적경제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공헌이 큰 사회적경제인 8명에게 도지사 표창이 수여되며, 이어 사회적경제인들의 응원 영상과 사회적경제기업 문화예술공연 '뮤지컬 갈라쇼' 공연이 펼쳐진다.

박유식 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축소하

여 진행하게 되었지만, 도에서는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 인재 양성, 판로 확대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 TOPPER

기쁜날 감동을 두배로 케이크토퍼

기념일 축하, 여행 감성사진, 기업홍보, 이벤트에 빠질 수 없는 케이크토퍼 토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STICKER

네임스티커&각종 홍보판촉 스티커

전제품이 특수 방수 코팅 되어있어 컵이나 식기류에 붙여도 번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이용품은 물론 각종 생활용품, 홍보물에도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 진주시, '2021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 조일상 예술감독에 감사패 수여



진주시는 23일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2021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의 성공 개최에 큰 기여를 한 조일상 예술감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조일상 예술감독은 홍익대학교 공예학 석사를 마친 조형작가로서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학장, 대한민국 공예대전 운영위원, 전국대학미전 운영위원장,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등을 두루 지내며 대한민국 미술계에 큰 역할을 해왔으며, 약 10년간 부산시립미술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우환 공간' 유치 등 지역사회의 수준 높은 문화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조 감독은 이러한 업적을 인정받아 올해 11월 부산시 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내 최고의 미술계 원로이자 문화행정가인 조일상 교수를 예술감독으로 선임한 '2021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는 실용성과 더불어 예술성 겸비한 진주 전통 소목 작품을 소개하고 전통 기법에서 현대적 미학을 살려낸 다양한 국내·외 공예 작품을 초청하는 등 수준 높은 내용으로 꾸며졌다. 올해 첫 회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원회 추산 약 1만 5000명의 관람자를 전국에서 불러들이며 18일간의 전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2019년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된 이후 가장 큰 규모로 개최된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를 통해 진주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 지역 예술 발전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 광주광역시 남구 "응어리 풀었다" 문해교실 80대 할머니, 장학금 기부



"나처럼 배우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써 주세요. 의료비도 아껴가며 마련한 장학금입니다."

문해교실에서 한글을 배운 80대 어르신부터 바자회 수익금을 기부한 마을 주민들까지, 광주 남구 관내에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세밀 운영이 잇따르고 있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진월동에 거주하는 박덕임(85) 할머니의 장학금

기부는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박씨 할머니는 최근 진월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원에게 "한글을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고 말한 뒤 보라색 편지 봉투를 건네고 자리를 떠났다.

편지 봉투 겉면에는 수기로 작성한 할머니 이름과 거주지 주소가 빼꼼뻑뻑하게 적혀 있었고, 봉투 안에는 의료비를 아껴가며 모은 현금 100만원이 담겨 있었다.

장학금을 기부한 이유는 가난으로 인해 글을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가슴 속 응어리를 문해교실을 통해 해소하게 된 고마움 때문이었다.

박씨 할머니는 맺힌 응어리를 남김없이 풀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남구청에서 실시한 문해교실을 찾았고, 배우에 대한 열정은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평생 학습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박씨 할머니는 올해 열린 문해교실 글짓기 한마당에서 이해인 수녀의 '꽃밭에서' 시 작품을 필사본으로 제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살아와서 배우지 못했다. 우리 자식들도 다 알고 있고, 나처럼 배우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관내 주민들도 연말을 앞두고 지역인재 육성에 힘을 보탤다.

진월동 한국아델리움 1차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난달 이웃간 소통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아나바다 장터 및 아이들을 위한 그림·표어 짓기 행사를 개최한 뒤 수익금 50만원을 남구장학회에 기부했다.

또 백운2동 주민자치회도 기부물품을 후원 받아 지난 12월 4일 푸른길 공원에서 '백운2동 행복나눔 바자회'를 열어 판매 수익금 50만원을 남구청에 전달했다.

남구 관계자는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며 "심사일만든 모야준 장학금은 지역사회 발전의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person

사람&사람

문화매일

2021년 12월 24일 금요일

13

## 충청남도, 딸기연구소 이인하 연구사 농업기술대상 수상



충남도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 이인하 연구사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올해 '농업기술대상'을 수상하며, 지난달 '지방행정의 달인'에 이어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23일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이 연구사는 '딸기 신품종 개발·보급'으로 종자 독립 및 수출 확대라는 주제로 국립식량과학원, 경북농업기술원과 연대 응모해 농업현장 문제 해결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연구사는 2016년부터 5년간 농촌진흥청 공동연구과제 2개 사업에 매진해 딸기 신품종 개발·보급 및 우량묘 묘소질 향상 기술 개발 연구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통해 5년간 로열티 142억 원을 절감하고 국산 품종 보급률을 96%로 높였다. 또 국내 육성 신품종 우량묘 확대 보급으로 바이러스 발생 제로화 달성 및 농가 소득 20% 향상에 따른 연간 총남 농가소득 501억 원 향상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신품종 통상실시 추진과 수출 품종 보급으로 수출액 63% 성장을 이뤄냈으며, 이 같은 연구성과는 학술지 게재, 영농기술정보자료, 재배매뉴얼 발간 등으로 인정받았다.

아울러, 농가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화아분화 검정 민원해결, 농가현장 컨설팅, 교육 등의 활동을 통해 딸기 산업 발전 및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한 실적도 높이 평가받았다.

이 연구사는 "딸기 신품종 개발·보급으로 농촌진흥청 농업연구 분야 최고 상을 받아 영광스럽다"며 "앞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국제 경쟁력 있는 세계 최고의 딸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농업기술대상은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농업과학기술 개발 및 확산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 국민의 생활여건 향상 등에 기여한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농업 연구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시상식은 이날 농촌진흥청 종합연찬관에서 열렸다.

최정근기자

## 광명소방서, 우리동네 방방곡곡 미니소방서 설치사업 시작

### 노후주택 밀집지역 내 공원 및 공공청사에 보이는 소화기함 설치

광명소방서는 23일 소회의실에서 '우리동네 방방곡곡 미니소방서 설치사업' 관련 기탁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명시 소재 기업체인 기아 오토랜드 광명과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및 광명소방서가 안전복지사업의 모범적 협력모델인 '안전복지 사각지대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동네 방방곡곡 미니소방서 설치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안전복지 사각지대 지원 프로젝트'란 안전 기부 문화조성을 통해 지정 기타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단체를 활용한 안전복지 사각지대 발굴, 생활 밀착형 안전홍보, 안전물품 설치·봉사활동 등을 통해 안전기반 조성 및 안전울타리를 강화하고



자 하는 사업이다.

광명소방서는 기아 오토랜드 광명에서 지정기탁한 안전기금 500만원 상당의 소방시설 물품을 활용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화재취약 지역 안전강화 사업을 위탁 맡아 '우리동네 방방곡곡 미니소방서 설치사업'을 추진, 광명동 등 노후주택 밀집지역 내 공원 및 공공청사 15개소

에 보이는 소화기함을 설치,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최준 서장은 "기아 오토랜드 광명과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에 감사드립니다"며 "광명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용민기자

## 평택시 오성면, 익명의 기부천사 9년째 이웃사랑 실천

평택시 오성면행정복지센터(면장 김영환)에 23일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백미10kg 50포를 기탁한 익명의 기부 천사로 인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매년 익명으로 2013년부터 9년째 백미10kg 50포~70포씩 기탁해 오고 있다. 익명으로 기탁된 선행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많은 분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선행이 되고 있다. 전달된 백미는 저소득층 홀몸 어르신, 복지사각지대가구 등 도움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오성면에 따르면 익명의 기부자는 소외계층 주민을 위해 뜻깊게 전달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그분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풍요롭게 보내기를 희망한다고 말만 남긴 것으로 전했다.

김영환 오성면장은 "지속적으로 큰 사랑을 베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며,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온정을 나눠 주셔서 감사하다"며, "소중한 뜻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 웅진군(㈜스마트코퍼레이션, 최기석 대표) 코로나19 사랑의 온도담 1억원 기부

웅진군은 ㈜스마트코퍼레이션이 12월 22일 인천광역시청 '인천 애들광장'에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상범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하며 1억원을 기부해 연말에 인천 지역사회에서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기석 대표는 웅진군 영흥면에서 태어나 영흥초·중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를 졸업 후 일찍이 사업에 뛰어들어 성공한 기업가로서 현재는 인천 서구에서 포장기계 및 제어장치 제조업, 무역 등으로 해외수출 시장 개척을 선도하는 우량한 벤처기업이다.

특히 지난 12월 6일, ㈜스마트코퍼레이션 최기석씨는 코로나19진단 키

트 대량 생산가능 기계를 자체 개발하여 무역진흥과 국가산업발전 유공으로 대통령 훈장인 동탑산업훈장을 수여 받기도 했다.

최기석 대표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기부에 동참하려는 꿈을 이루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나눔을 실천하여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웅진군에서는 코로나로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도 훌륭한 벤처기업을 일군 기업가 정신, 1억원 기부 동참 등 나눔 실천을 한 최기석 대표에 대해 지역의 자랑스러운 리더로서 적극 군민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중남기자



## 제1회 '거창 산양삼 전국 가요제' 열띤 경연 속 성료



(재)거창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제1회 '거창 산양삼 전국 가요제'가 열띤 경연 속에 지난 18일 토요일 막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거창산양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된 이번 '거창 산양삼 전국 가요제'는 전국에서 총 71명의 참가자 중 12명의 본선 진출자 경연과 초청가수의 축하공연으로 가요제 본선이 진행됐다.

경북에서 출전한 이종민 참가자의 '존재의 이유'를 시작으로 저마다 애절하고 가슴을 울리는 출중한 노래 실력에 심사위원들은 "우열을 가리기가 무척 힘들었다"는 심사평과 함께 '남이여'를 부른 강병권 씨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금상 김용호, 은상 최호우, 동상 주이나, 장려상 정원화, 인기상 김봉섭이 각각 수상을 했으며, 대상 수상을 강병권은 트로피와 상장, 상금 3백만 원, 산양삼, 축하 꽃다발

과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거창지회 이상규 회장으로 부터 가수인 증서 수여식이 있었다.

이번 가요제에서는 수상을 하지 못한 본선 참가자들에게도 거창산양삼협회에서 제공한 지역특산물인 거창 산양삼을 제공하여 어느 대회에서 볼 수 없는 훈훈한 인심을 보여줬다.

구인모 이사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하여 가요제를 비대면으로 추진하다 보니 대면으로 군민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많이 아쉽지만 행사 관계자와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무사히 가요제를 끝마칠 수 있어 다행스럽고 대상을 수상한 강병권 참가자를 포함한 6명의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본선에 오른 참가자들과 이번 가요제에 도전한 모든 참가자들에게도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장병철기자

## 합천군의회 박중무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합천군의회 박중무의원이 지난 10월 29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 30주년 및 제9회 지방자치의 날(2021.10.29.)을 맞아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방의회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봉사한 공이 지대한 박중무의원에게 상장을 수여한다"고 했다.

군의회 배몽희의장은 23일 오전 의정실에서 박중무의원에게 상장을 전달했다.

장병철기자



# 경기문화재단 문화이음 포괄기부금 활용 「경기 젊은작가(New Blood)」 작품구입공모 결과

## 경기도 내 미술전문대학교와, 미술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졸업전시 작품 작가 12명 선정

2021년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경기 젊은작가(New Blood)」 작품구입공모에 경기도 내 미술전문대학교와 미술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12명이 최종 선정되었다. 「경기 젊은작가(New Blood)」 작품구입공모는 경기도 내 미술전문대학을 졸업하는 예비 미술인들에게 '생애 첫 작품구입'을 통해 작품 활동을 위한 큰 힘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경기도형 미술인 후원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작품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이음 포괄기부금이 활용되어 더 의미 있는 작품으로 남을 것이다. 경기문화재단은 2020년 '코로나 긴급 미술작품구입'으로 확보된 203점의 작품과 함께 경기도 곳곳에 선정 작품을 소개하고 경기도 신진작가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경기 젊은작가」 작품구입공모는 2021년 11월에 접수되어 12월 14일 미술현장의 아트딜러, 평론가, 중견작가로 구성된 외부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였

다. 심사에 참여한 위원 중 한명은 "경기도만의 신진작가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경기도만의 경쟁력 있는 미술시장을 구성하는 방안"이라고 하였으며, "경기 젊은작가 작품구입사업은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시도이며, 미술저변을 확대하는 뜻깊은 일"이라고 하였다. 선정된 작가 중 한명은 "경기도에서 미술대학을 다니는 학생으로 큰 힘이 되며, 사회에 나가서 작가로서 활동하는 것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기 젊은작가」 작품구입공모는 작품만 구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에서 벗어나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서 작가로서 활동하는 데 꼭 필요한 '작품매도 계약서 작성방법', '작품저작권 활용방법', '미술작품 창작대가 산정기준', '경기도 예술인등록' 등 작가로서 사회에서 겪는 다양한 사례들을 해석하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12명의 선정 작가에게 경기도를 대표하는 미술인으로 당연하게 알고 누려야 하는 권리를 작품구입을

통해 알려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경기문화재단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왜 필요한 곳인지 알게 되었으며, 특별한 작품구입을 통해 작가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을 학교가 아닌 현장에서 배울 수 있어 좋았다."라고 밝혔다. 경기문화재단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 성장한 작가만을 지원하는 문화기관이 아닌 미래 문화를 위해 함께하는 상상하는 기관임을 인식시켰다. 「경기 젊은작가」 작품구입사업은 일회성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2022년 문화이음 기부금과 경기미술창고 작품구입 예산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미래예술인의 작품을 구입할 것이다. 「경기 젊은작가」 작품구입을 통해 선정된 12점의 작품은 경기문화재단과 협력된 공공기관과 공익적 장소에 정기적으로 전시되며, 2022년 7월에는 선정 작가들 중심으로 특별기획전시를 지원하여 명실상부한 경기도형 공공예술작품으로 역할을 부여할 예정이다. 경기문화재단 강헌 대표는 "미약한 예산이지

만,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경기 젊은작가 작품구입과 경기미술창고 활용사업은 많은 예산의 일회적 작품공모보다 더 의미 있고 꼭 필요한 경기도형 지원사업"임을 강조하였다. 1990~2000년대 초반 국내에는 수많은 미술상을 통해 일약 스타 작가들이 발굴되곤 하였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미술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 작가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유럽에서는 1980년대 문화기관들이 예비 작가들을 위한 작품구입과 지원사업을 통해 지금은 세계적인 작가들을 배출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최초 작품구입이 갖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는 매개자로서의 가치를 갖게되었다. 경기문화재단 「경기 젊은작가(New Blood)」 작품구입공모 사업은 작품을 구입하는 과정과 작가로서 살아가기 위한 교육을 결합하여 작품구입에서 보관, 활용, 그리고 예술작품의 사회적 환원과정을 공개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만이 갖는 문화예술가치 실현의 방법으로



남을 것이다. 조혜영/기자

### 2021 사제소통 '전통으로 어우러지다' 공연을 마치고..



국악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지금 포항의 생활예술인들을 중심으로 국악을 배우고 즐기며 재능기부와 함께 사회에 환원하며 의미있는 삶을 살고 있는 시민국악예술인들이 1년을 마무리하는 공연이 사제소통 '전통으로 어우러지다' 라는 주제로 2021년 12월 21일 늦은 7시 포항시청 대강홀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스승과 제자가 한 무대에서 전통음악으로 서로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은 코로나19로 지치고 삶이 척박해진 이 시대에 온정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제 포항의 문화는 전문예술인들만에 의해 움직이는 문화가 아니다. 생활예술인이란 이름으로 일반 시민들의 삶 속에 예술의 꽃을 피우고 있다. 일상의 변화를 예술문화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포항시민의 모습에서 여유로움과 문화시민으로서의 만족감을 찾아볼 수 있었다.

경상북도지정 전문예술단체 예심국악소리에서는 포항향토무형유산원과 예심국악연구소가 제 3회 사제소통 '전통으로 어우러지다' 라는 주제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강연자 시니어시인예술단 부단장은 "일년동안 함께 할 수 있어 좋았는데 이렇게 큰 무대를 만들어 맘껏 뽐낼 수 있게 해 준 장임순 스승님께 감사합니다. 부족함을 부족하다 하지 않고 잘한다 칭찬만 해 주시는 말씀에 더 힘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해영재예술단 김지민 어린이는 "춤을 추는게 너무 좋아요. 내가 주는 춤이 우리나라 춤이라서 더 좋아요. 선생님이 춤을 추면 새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처럼 우리 춤을 잘 추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미래를 볼 수 있다.

장임순 대표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이 만든 무대라고 흐뭇한 마음을 전하며, 10년 20년 후에 지금 어린제자들이 성인이 되고 지금의 성인 제자님들이 손주를 보고 전통음악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고 했다.

포항에는 스승과 제자가 서로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고 준비하는 멋진 무대가 있고 전통음악으로 어우러지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장용수/기자

## 수원시, '사도세자의 부마, 흥은위 정재화' 전시 연계 특강

### 21~22일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조선 시대 왕실 여성의 지위와 삶' 등 강연

수원화성박물관이 21~22일 정조시대 왕실 문화를 소개하는 '사도세자의 부마, 흥은위 정재화' 전시 연계 특강을 열었다.

2021년 수원화성박물관 특별기획전 '사도세자의 부마, 흥은위 정재화'와 연계한 이번 교육은 박물관 영상교육실과 수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진행됐다. 21일에는 김민규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강사가 '18세기 능묘 석물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강연했다. '조선 시대 능묘 미술의 특징', '흥은위 정재화와 청선공주묘를 중심으로 한 능묘 석물(묘에 설치하는 돌로 만든 조형물)의 특징' 등을 설명했다.

★ 『禮記』의 육례와 왕실 혼례

『禮記』	준비 과정	納采 (問名)	納吉 (議婚)	納幣 (請期)	親迎
『朱子家禮』	議婚	納采	*	納幣	親迎
왕/왕비 가례 (六禮)	간택	납채	납경	솔례	주부사 朝見禮
왕/후궁(빈) 가례	간택	납채	납배	*	(宣敎命儀) 동원례 朝見禮 大親儀
왕/후궁 (숙의)가례	간택	*	*	*	周부사 朝見禮

『숙의가례정등록(淑儀嘉禮廳贈錄)』  
『경빈가례정등록(慶嬪嘉禮廳贈錄)』

22일에는 이미선 한국학중앙연구원 전통한국연구소 연구교수가 '조선 시대 왕실 여성의 지위와 삶'을 주제로 강연했다. ▲왕실 여성의 범위와 칭호 ▲후궁의 지위와 삶 ▲궁녀의 지위와 삶 등 왕실 여성의 제도화된 지위와 삶의 특징 등을 소개했다.

수원화성박물관 관계자는 "조선시대 왕실 부마(왕실의 사위)의 위상과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교

육을 마련했다"며 "내년 3월 27일까지 열리는 특별기획전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화성박물관 특별기획전 '사도세자의 부마, 흥은위 정재화'에는 흥은위(興恩尉) 정재화(鄭在和) 선생의 후손이 기증한 정재화 선생 관련 유물 1000여 점 중 100여 점이 전시된다.

조혜영/기자

## 전남-경북, 관광사진 순회 전시로 공동 마케팅

전라남도는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지역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소개하는 '전남-경북 합동 관광사진 전시회'를 2022년 1월 7일까지 두 기관을 순회하며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경북도와 상생 교류 협력차원에서 관광 부서 간 2015년 7월부터 탐방급 인사교류, 관광정보 교류 및 홍보책자 상호 배부 등 다양한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두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해 경북도청 1층에서 30일까지 8일간, 전남도청 윤선도홀에서 12월 31일부터 8일간 열린다.

전시 작품은 전남과 경북의 2021 관광사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이다. 전남·경북 각각 20여 점의 아름다운 관광사진 작품을 전시한다.

전남도 관광사진 공모전은 지난 10월까지 6개월간 전남의 숨겨진 관광지들과 대표음식을 주제로 열려 금상 1점, 은상 1점, 동상 3점 등 총 25점의 우수작을 선정했다.

금상은 노명희 씨의 '고분과 핑크 물리', 은상은 나기환 씨의 '목원동 벽화마을 야경', 동상은 김재은 씨의

'메밀꽃 핀 선학동마을'과 김지혜 씨의 '유빙의 와운', 양성영 씨의 '죽림재의 풍경' 등이 차지했다.

경북도 관광사진 공모전에선 대상은 이복현 씨의 '해안 스카이라일', 최우수상은 이지영 씨의 '보문정의 불밤', 우수상은 이경호 씨의 '늘비봉', 홍종표 씨의 '고분군의 아침' 등 34점이 선정됐다.

이번 전시회는 청정 전남의 이미지를 뽐낼 뿐만 아니라 경북의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과 경북이 함께하는 이번 관광사진 전시회는 두 지역의 관광 정보 공유와 공동 관광마케팅 사업의 범위를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전시회를 시작으로 두 지역의 협력교류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져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광사진공모전 수상작은 남도여행길잡이와 전남관광재단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김영만/기자

## 대전시, 청년작가의 무대, '넥스트코드 2022'작가 공모

### 대전시립미술관 청년작가지원전 공모, 2021년 12월 15부터 1월 31일까지

대전시립미술관은 대전·충남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작가를 발굴, 양성하는 전시인 '넥스트코드 2022'의 참가 작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한국미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지역의 유망한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공감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기획했다.

청년작가지원전은 1999년 '전환의 봄'으로 출발하여 2008년 '넥스트코드'로 개칭된 이후 20여 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그동안 140여 명의 역량 있는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했다.

참여 작가 선정은 포트폴리오 공개 모집으로 진행되며, 내·외부 전문가의 검토 및 회의를 통해 공정하게 선발할 계획이다. 대전·충남 지역을 연고로 두고 활발한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39세 이하 작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서, 포트폴리오, 작가노트 및 비평글, 작가약력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작가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대전시립미술관 에서 작품을 전시할 수 있게 된다.

접수기간은 올해 12월 22일부터 내년 1월 31일 자정까지이며,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내년 2월 24일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립미술

DAEJEON MUSEUM OF ART EMERGING ARTISTS NEXTCODE 2022 OPEN CALL

대전시립미술관 청년작가지원전 공모

2022 청년작가 지원전 작가공모

전시기간 : 2022년 11월 ~ 2023년 1월  
\* 10월 21일 개막식 포함

전시장소 : 대전시립미술관 3·4 전시실

주최 : 대전시립미술관

출품부문 : 시각예술 전 분야

응시자격 : 대전·충남지역 연고로 39세 이하 작가 \* 대전외 지역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② 포트폴리오, ③ 작가노트, ④ 비평글, ⑤ 작가약력

접수기간 : 2022. 12. 22(화) ~ 2023. 1. 31(목) 자정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지원서, 포트폴리오, 작가노트, 비평글, 작가약력

신청방법 및 일정 : 신청방법, 서류 및 포트폴리오 등서, 신청결과발표 : 2022. 2. 24. (목) 개별통보 예정

문의 : daejeonmuseum@korea.kr,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042-270-7341) \* 지원서, 포트폴리오, 작가노트는 daejeonmuseum@korea.kr로 이메일 접수

관 학예연구실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전시를 담당할 빈안나 학예연구사는 "넥스트코드는 지역 미술을 이끌어갈 차세대 작가를 양성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열정있는 젊은 작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호/기자



## 강원공무원문학회 '새봄' 제28집 출판

강원도내 공무원들로 구성된 순수문학 동호회인 강원공무원문학회에서 문집 '새봄' 제28집을 출판했다.

강원공무원문학회는 1991년에 창립하여 현재 69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문집 발간 외에도 회원들 중에 우수회원을 선정하여 '새봄문학상'을 수상하고, 신인문학상 공모전을 통해 숨은 문학인을 발굴하여 문단으로 이끌어내는 등 도내 문학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이번 제28집에는 수상작들을 포함하여 동화, 수필, 시 등 52편의 작품이 수록되었으며, 올해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새봄문학상 : 수필가 이경진, 수필가 황장진  
새봄신인문학상 : 시 부문 : 천성민(강원도 2024 청소년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수필 부문 : 김영대(횡성군 보건소)

아동문학(동화) : 김주만(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

이등원/기자





# 2021 국내외 투자유치 4조 8천억 원, 역대 최대 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고용 창출 이끌어

경제부지사 직속 투자유치 전담조직 신설, 경제성장 원동력 기업유치 최우선

올해는 코로나19 확산과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환경으로 투자심리가 그 어느 때보다 위축된 해였다. 경상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조 8천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 기업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도는 지난 1월 Iq전자㈜ 등 대규모 투자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국내기업 4조 1,726억 원, 쿠팡㈜ 등 해외기업 (외국인투자, 국내복귀) 6,885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으며 1만 명이 넘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경남도가 기업 투자유치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전담조직인 투자유치지원단을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신설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활동을 펼쳐온 결과로 분석된다.

[국내기업 유치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동력 창출]

도는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선도기업 유치를 위해 올해 초 산업별 투자유치활동 전략을 수립했다. 산업별 전문가들과 투자유치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도와 시군, 유관기관 공동 투자유치활동으로 신속한 동향 파악과 도내 207개 산업단지의 우수한 입지조건을 활용한 투자 상담을 통해 투자를 유도했다.

특히 도는 제조업 혁신분야와 미

래 신성장 산업분야의 핵심기업 유치에 집중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경남의 미래 성장 동력 발판을 마련했다.

Iq전자(주), 로만시스(주) 등 일자리 주도형 대규모 기업유치를 통해 청년 고용과 실직자 재취업 등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또한 삼강엔터(주), 경남큐에스에프(주) 등 그린 뉴딜 선도기업 유치를 통해 경남 산업 구조 고도화를 도모했다. 코로나 19 이후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컬리, ㈜야미이블과 스마트 물류센터를 신설하는 ㈜경동소재 유치도 경남도가 신산업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외국인투자 유치로 대규모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국내복귀기업 최다 유치 성과]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성과도 돋보인다. 코로나 19로 외국기업들의 투자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55개사에서 약 2억 1,400만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지난 4월 국내 굴지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주)은 2024년까지 창원시와 김해시 물류센터 2개소에 3,000억 원을 투자하고 4,000명을 신규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쿠팡(주) 고용위기대응특별지역으

로 지정된 창원시 진해구에 3,000여 명의 신규고용을 약속하는 등 고용여건이 어려운 지역경제에 회복 가능성을 부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첨단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도 증가하는 추세다. gmb코리아(주), 보그위너창녕(유), ㈜코렌스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미래자동차 부품기업들도 경남을 투자 최적지로 보고 증액 투자를 결정했다.

한편 코로나19, 공급선 다변화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복귀를 고민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5월 국내복귀기업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국내복귀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국내복귀기업의 복귀원인을 분석해 기업이 원하는 부지를 제시하고 전용 혜택(인센티브)을 지원하는 등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이 한 번에 정착할 수 있도록 턴키(turn-key) 방식의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전국 103개의 국내복귀기업 가운데 최대인 14개사가 경남도를 선택해 국무총리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비대면 투자유치활동 전개 및 투자 혜택 확대 지원]

코로나 19 상황에 맞게 투자유치 활동도 다양화해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상담이 가능



한 카카오톡 채널 '경상남도 투자상담'을 개설하고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로 온라인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해 경남의 투자환경과 혜택(인센티브)을 소개하며 온라인 상담도 진행했다.

경남도는 투자금액, 신규고용 인원에 따른 다양한 투자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투자기업에게 ▲ 부지매입 무이자용자, ▲ 대규모 투자 지원, ▲ 투자사업장 임대료 지원, ▲ 기업투자 촉진지구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작년 말 신·증설 기업 지원 항목을 신설해 올해 최초로 2개 기업에 투자유치진흥기금 보조금을 지원하게 됐다. 자세한 사항은 경

상남도 투자유치지원단(055-211-4071), 카카오톡 채널 '경상남도 투자상담'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도는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함께 전략산업 핵심기업 유치를 위해 혜택(인센티브)대상 확대 등 기업 지원 방안도 꾸준히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김인수 경남도 투자유치지원단장은 "2021년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경남의 가치를 믿고 과감하게 투자한 기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광남/대기자



economy

경제

문화매일

15

2021년 12월 24일 금요일

부천시, Wifi6 지원 단말기 보급으로 정보격차 지원

부천시는 디지털 환경에 소외된 시민들이 다양한 데이터 접근 및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Wifi6가 지원되는 단말기 보급사업을 착수하며, 2021.12.22. 9시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밝혔다.

금번 단말기 보급사업은 부천시 거주자 중 장애인 35,000여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3,120명에게 단말기(태블릿)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들에게 공공 와이파이를 물론 매일 일정량의 데이터(10Giga)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사용의 편리성을 강화하고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부천시와 아토리서치(주)는 LG U+(대표: 황현식)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어 사회공헌활동으로 LG U+에서 통신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부천시는 추가적인 예산절감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부천시가 추진하는 따뜻한 스마트 도시 구현에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시민"의 "참여"와 "포용"으로, 다양한 정보 접근성을 제공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는 시민을 따뜻하게 포용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해오고 있다.

장덕현 부천시장장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따뜻한 스마트시티 부천" 구현을 위해 아토리서치(주)와 (주)LG U+가 단순한 시책사업의 참여를 넘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반자의 역할을 해주고 있음에 감사를 표하며, 스마트도시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데이터와 다양한 정보에의 접근을 통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윤용민/기자

## 부산시, 지역 상공인과의 협력으로 경제위기 극복 총력

부산시·부산상공회의소

공동 주최, 경제협의체

대표회의 개최

부산시는 오늘(20일) 지역현안과 경제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상공회의소와 경제협의체 대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제협의체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취임 이후 부산시와 상공회의소가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협의체로, 대표회의 및 8개 분과별 회의가 진행된다.

오늘 회의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하여 경제부시장, 경제분야 주요 실·국장 등 부산시 주요 간부가 참석했고, 부산상공회의소에서는 장인화 회장, 수석부회장 및 분과위원

장 등이 참석하여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협력해야 할 경제 현안들을 논의했다.

시는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대선공약 과제를 공유하여 지역 현안에 대선공약에 포함되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 유치를 위해 기업차원에서 다양한 협업을 강조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상공회의소에서도 상공계 차원에서 마련한 대선공약 과제를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협의체로, 대표회의 및 8개 분과별 회의가 진행된다. 상공회의소에서도 상공계 차원에서 마련한 대선공약 과제를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협의체로, 대표회의 및 8개 분과별 회의가 진행된다.

남영명/기자

제품 애용 등에 대해 부산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을 포함한 지역의 현안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장인화 회장은 "양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방균형발전 1호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며, "앞으로도 부산시와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혁신에 앞장서겠다"라고 시와의 협력 의지를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경제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상공회의소는 경제정책의 파트너로서 그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민관협력의 모범이 되어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남영명/기자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산자부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 달성



정량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 부문별

정성평가에서 A등급 받아

종합 A등급 달성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A 등급을 받았다.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는 지난 2010년 산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매년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 투자유치 활성화 등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평가 결과 경기경제청은 단위지구 평가, 내·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평가하는 정량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 전략, 개발 및 투자유치 전략, 혁신생태계 구축 전략 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종합평가 A등급을 달성했다.

경기경제청은 산업부 평가 이후

2019년까지 B등급을 받아왔다. 이후 지난해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생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평택 포승(BIX:Business & Industry Complex)지구' 기반 시설 완공, 올해 ▲'육·해·공 무인 이동체, 의료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등 3개 지구로 개발하는 '시흥 배곧지구'의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수소경제도시 및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평택 현덕지구'의 개발사업 종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등급을 높였다.

이 밖에 ▲현대모비스 투자유치를 통한 미래차 중심의 성장 기반 마련 ▲FDI(외국인직접투자) 목표 2,075% 달성 (목표액 36만4천 달러, 달성액 755만5천 달러), ▲국내기업 투자유치 목표 194% 달성 (목표액 174억2,300만 원, 투자액 338억4백만 원) 달성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진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경기경제자유구역이 서해안 중심의 미래 신산업 혁신 거점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포항구항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첨단 해양산업 RnD 센터 활성화 업무협약'

포항의 해양 신산업 육성과 도시활력 증진 위한 구항 도시재생 뉴딜 핵심사업

포항의 해양 신산업

육성과 도시활력 증진

위한 구항 도시재생 뉴딜

핵심사업

포항시는 철강산업의 쇠퇴에 따라 지속가능한 새로운 산업 육성 및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추진 중인 '포항항 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사업인 '첨단 해양산업 RnD센터'활성화 업무협약을 20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체결했다.

포항항 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경제기반형)은 2019년 7월 국토교통부에서 활성화계획 승인 및 국가지원 사항이 결정된 사업으로, 송도동 일원에 첨단해양산업 RnD센터 건립, 복합 문화예술체험 거점조성, 항만재개발사업 등

총사업비 9,542억 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6년 간 추진된다.

해양신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개편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신경제 거점형성에 사업 목표를 두고 있는 '첨단 해양산업 RnD센터'는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4-102번지 일원에 197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추진하는 시설이다.

연면적 9,449㎡에 지하 1층부터 지상 9층까지 총 10층 규모로 건립 중이며, RnD를 위한 연구시설 뿐만 아니라 연구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의시설 및 시민들이 해양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등으로 구성돼,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포항시 △포스텍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RO △중소조선연구원 △한일 뉴즈(주) △부산테크노파크 △포항테크노파크 8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RnD센터 활성화를 위해 필

요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 등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해 시행한다는 협약서에 서명했다.

포항시에서는 '첨단 해양산업 RnD센터' 해양 신산업 기반 기업들의 시제품 Test Bed 공간 조성, 해양레포츠장비 체험공간 등 송도 해양레포츠장에 해양레포츠 플레이라운드를 조성해 자유롭게 연구·시험하고, 기업들이 사업까지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첨단미래해양산업의 기술 선도기업과 유관기업이 협력해 미래전략 성장산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 산업구조 다변화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며, "첨단 해양산업 분야 기술개발 및 관련 창업활성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첨단 해양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노이/장용수/기자

양액재배 품목 확대 전환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내년 시범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양액재배 적용 품목 확대에 나선다.

23일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양액재배는 필라이트, 압면, 코코피트 등 고품 배지에 무기양분을 녹인 양액을 공급해 식물을 재배하는 방식이다.

생산량·품질 증대, 연작장애 감소, 노동력 절감 등의 효과가 장점으로 꼽힌다.

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시범적으로 쪽파 품목에 대한 양액재배 확대 사업을 추진해 가능성을 확인했다. 양현민 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지도사는 "양액재배의 장점을 다양한 작물에 시범적용해 농업소득 향상에 노력하겠다"며 "내년에는 당귀, 고추, 생강 등 다양한 작목을 대상으로 양액재배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뮤지컬 '알타보이즈' 'K팝 뮤지컬'로 업그레이드.. 글로벌 팬들 폭발적 반응 속 첫 공연 성료!

K팝 스타일로 화려하게 업그레이드된 브로드웨이 뮤지컬 '알타보이즈'가 12월 18일 본격적인 막을 올리며 전세계 팬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슈퍼주니어 은혁의 흡입을 데 없는 연출부터 뉴이스트 백호, 아스트로 윤산하, SF9 유태양, 골든차일드 Y(와이), 홍중찬 등 주연 배우들의 완벽한 변신, 백우영과 김중우 등 국가대표급 창작진이 선보인 춤과 노래, 무대와 퍼포먼스까지 글로벌 K팝 팬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다.

알타보이즈의 '열정 리더' 매튜로 변신한 백호는 '역시 프로'라는 호평을 이끌어냈고 마크 역의 홍중찬은 미소년 캐릭터로 인해 다정하고 순진한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루크 역의 Y(와이)는 개구쟁이 악동으로 분해 '엄마 미소'를 유발했고, 후안 역의 유태양은 섹시하고 관능적인 매력으로 여심을 저격했다.

'알타보이즈'를 통해 뮤지컬 연출가로 첫 발을 내딛은 은혁의 연출력 역시 돋보였다. 배우들의 연기는 물론이고 무대 장치, 음악, 의상 등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써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 그는 슈퍼주니어 콘서트 등을 통해 쌓은 특유의 화려하고 센스 넘치는 기획력으로 '알타보이즈'의 불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채웠다.

이번 '알타보이즈' 서울 공연은 KBS 아레나와 공연 전문 글로벌 플랫폼 메타씨어터, CGV와 오렌지스카이 골든하베스트(Orange Sky Golden Harvest) 등 오프라인 공연장과 온라인 플랫폼, 글로벌 멀티플렉스 체인 등 다양한 공간에서 동시 공개되어 아시아 관객들이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첫 공연 당일부터 '#알타보이즈'가 주요 트렌드 키워드로 오르는데 힘입어, 공연 직후에는 관련 사진들이 각종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휩쓸며 화제를 모았다.

주말 이틀 동안 메타씨어터(온라인 생중계)와 라이브 뷰잉(극장 생중계) 등 온라인 관람객만 4,000명 가까이 기록해 코로나19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대유행 속에서도 선전했으며 특히 일본, 홍콩, 타이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서의 호응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이러한 실험이 가능했던 것은 K팝 열풍의 산실인 SM 엔터테인먼트의 콘서트 전문 제작사 드림메이커엔터테인먼트와 '광염소나타', '태양의 노래' 등 K팝 스타들을 내세운 뮤지컬 제작사 (주)신스퀘어의 성공적인 협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향후 (주)신스퀘어는 '알타보이즈'를 발판 삼아 '오리지널 K팝 뮤지컬'이라는 독자적인 장르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알타보이즈'는 오는 12월 24일까지 서울 KBS 아레나, 공연 전문 글로벌 플랫폼 메타씨어터, 한국과 인도네시아 등의 CGV 극장과 홍콩과 대만 등 오렌지스카이 골든하베스트 극장에서 계속된다.

작품과 관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티켓링크, 신스퀘어 공식 SNS 및 메타씨어터 홈페이지와 공식 SNS, CGV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유주기자

월화드라마 '꽃 피면 달 생각하고', 1회부터 설렘 폭탄 예고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유승호와 이해리가 첫 방송부터 아슬아슬하게 포개진 투샷을 예고했다. 날뿔팔이 아씨 이해리의 박력 넘치는 행동이 그대로 얼어붙은 시골선비 유승호의 모습은 보는 이들을 설레게 한다.

드디어 20일 처음 방송되는 KBS 2TV 새 월화드라마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측은 20일 남영(유승호 분)과 강로서(이해리 분)의 '갑분(갑자기 분위기) 눈맞춤' 스틸을 공개했다.

'꽃 피면 달 생각하고'는 조선 시대 내려졌던 금주령을 배경으로만 가져와 드라마적 상상력을 가미한 퓨전 사극이다. 작품은 원칙주의 감찰 남영(유승호 분), 생계형 밀주꾼 로서, 날라리 왕세자 이표(변우석 분), 병관댁 무남독녀 한애진(강미나 분) 등을 중심으로 세상이 정한 금기를 깨는 청춘들의 모험기를 담는다.

유승호가 연기하는 남영은 시골에서 갓 올라온 선비로, 오직 정도만을 걷는 선비의 기개와 기풍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양반의 체면보다 밥벌이가 더 중요한 날뿔팔이 아씨 로서를 만나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다.

남영은 설상가상 로서의 집에서 셋방살이를 시작, 그의 인생에 없던 난감한 상황을 맞닥뜨릴 예정이어서 궁금증을 자극한다.

남영의 등장에 난감한 건 로서도 마찬가지이다. 로서는 금주령의 시대, 오라비 강해수(배유람 분)가 진백 냥 빛을 갖기 위해 목숨을 걸고 술을 빚으며 밀주꾼이 되는 인물. 서로의 정체를 모르는 두 남녀가 한 집살며 벌어질 이야기에 호기심이 증폭된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스틸에서는 남영을 문 앞에서 밀치며 뚫을 포갠 로서의 모습이 포착됐다. 남영은 박



력 넘치게 자신에게 직진하는 로서의 모습에 얼어 붙은 모습이다. 로서는 다급한 포즈로 남영을 막아두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낸다.

특히, 로서와 남영의 '초밀착 눈맞춤'은 보는 이들의 설렘 세포를 자극한다. 갑자기 일어난 청춘남녀의 묘한 눈맞춤 후에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본 방송을 기대하게 한다.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측은 "남영과 로서는 같은 양반이지만 살아온 세계가 다른 극과 극 인물이다. 삼국인 두 남녀가 한집살이를 하며 보여줄 '아슬아슬'한 로맨스가 첫 방송부

네이버 오디오 무비 '츙', 메인 예고편 최초 공개

이제껏 만난 적 없는 프로파일링 오디오 무비 '츙'이 극강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메인 예고편을 최초 공개했다.

네이버 바이브에서 공개될 오디오 무비 '츙'은 알 수 없는 중간소음이 계속되는 무광 빌라에서 벌어진 의문의 사건, 용의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프로파일러 '강호'(이재훈)와 사건 담당 경위 '지호'(문채원)가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가는 과정을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다.

이번에 공개된 '츙' 메인 예고편은 기존 예고편과 차별화된 신선한 구성과 예측불가능한 추리 과정을 밀도 있게 담아내 이목을 사로잡는다.

먼저, 프로파일러 '김강호'가 수사 파트너인 형사 '신지호'에게 본격적인 프로파일링의 시작을 알리는 모습은 두 얼굴을 가진 무광 빌라에서 펼쳐질 이들의 이야기를 기대케 한다.

8개월 전과 동일한 형태의 추락사 사건을 보도하는 뉴스 특보에 이어 "제일 먼저 403호의 죽음으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볼까요?"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강호'의 모습은 숨겨진 진실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여기에 "제가 무언가를 말하는 순간, 다음엔 제가 죽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아니야! 제가 안 그랬습니다!" 등 외면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용의자들의 증언과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의문의 소리들은 끝없는 상상력을 자극하며 몰입감을 높인다.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메인 예고편을 최초 공개한 '츙'은 질 새 없이 몰아치는 긴장감 속 탄탄한 스릴러의 새로운 재미를 선보일 것이다.

오직 음향 기록만으로 사망 사건을 추적하는 신선한 소재와 몰입감

높은 스토리, 이재훈, 문채원, 강신일, 양동근, 정준하, 백성현, 조한나, 김유진, 이새별까지 배우들의 다채로운 목소리 연기로 기대를 모으는 프로파일링 오디오 무비 '츙'은 총 6편의 에피소드로, 12월 27일부터 네이버 바이브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현유주기자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 강하늘, 의적단 두목 '무치' 완벽 변신

강하늘표 능청스러운 코믹 연기부터 화려한 검술 액션까지!

신선한 소재, 스펙터클한 볼거리, 총무로 대세 배우들의 만남으로 기대를 높이는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의 강하늘이 자칭 고려 제일급인 의적단 두목 '무치' 역으로 다시 한번 대체불가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 오락 블록버스터의 한 획을 그었던 '해적'의 귀환 '해적: 도깨비 깃발'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왕실 보물의 주인이 되기 위해 바다로 모인 해적들의 스펙터클한 모험을 그린 영화다.

2016년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를 그린 영화 '동주'를 시작으로 '청년경찰'의 경찰대생, 전국에 촌드파탈 신드롬을 일으켰던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순박한 시골 순경까지 시대와 장르를 불문한 완벽한 연기 변신으로 대중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온 강하늘. 명실상부 총무로 대세 배우로 자리매김한 강하늘이 '해적: 도깨비 깃발'에서 자칭 고려 제일급



이자 의적단 두목인 '무치'로 분해 특유의 유쾌함과 인간미가 녹아 있는 착불 캐릭터로 돌아온다. 과거 자신이 고려 제일의 검호였음을 자랑할 만큼 탁월한 검술 실력을 자랑했지만, 현재는 '해랑'(한효주)의 해적선에 얽혀 지내며 바다를 전전하는 신세인 '무치'는 해적들의 구박에도 기죽지 않고 자신의 지난 위상을 끊임없이 자랑할 만큼 기세 등등한 인물이다. 그간 다양한 작품을 거치며 폭넓은 캐릭터 해석력을 다져온 강하늘은 능청스러운 코믹 연기부터 화려한 검술 액션까지 탁월한 완급 조절을 통해 유쾌함과 진지함을 넘나드는 '무치'만의 독보적인 매력을 여과 없이 발산할

OTT 웨이브 '트레이서' 4인4색 캐릭터 포스터 공개

국내 최대 OTT 웨이브(wavve)의 새로운 오리지널 드라마 '트레이서'가 다채로운 매력의 4인 4색 포스터를 공개해 기대감을 높인다.

'트레이서'는 누군가에게 관감사보다 무서운 국 세청, 일명 '쓰레기 하치장'이라 불리는 조세 5국에 굴러온 독한 놈의 몰볼 안 가리는 활약을 그린 통쾌한 추적 활극이다.

이번에 공개된 캐릭터 포스터는 나쁜 돈 쫓는 국가 공인 전문가 캐릭터들의 각양각색 매력이 담겨있어 눈길을 사로잡는다.

뽀개 총명한 조세 5국 팀장 '황동주'로 분한 임시완은 남의 눈치 보지 않는 뻔뻔한 실력자로 색다른 변신을 예고한 가운데, "돈보다 무서운 게 결국, 사람 아니겠습니까?"라는 카피가 더해져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쁜 돈을 추적해 나가는 활약을 기대케 한다.

발로 뛰는 행동력 감의 조사관 '서해영'으로 분한 고아성의 포스터는 "제가 그랬잖아요. 한번 믿어 보시라고"라는 카피로 '해영'이 비겁한 세상에 어떠한 방식으로 맞설지 호기

심을 자극한다.

한편, "결국 속느냐 속이느냐의 게임이야"라는 카피와 함께 강렬한 카리스마를 발산하는 순천주의 모습은 국세청 일인자의 자리를 노리는 중앙지방국세청장 '인태준'의 끝없는 야망을 짐작케 하며 긴장감을 자아낸다.

일을 안 하는 게 일인 과장 '오영'역의 박우우는 담담한 표정 속 내공이 돋보이는 가운데, "가끔은 안 쪽 팔린 일도 좀 해봐야지"라는 카피로 현실주의자 '오영'이 어떠한 심경의 변화를 겪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더한다. 이렇듯 각기 다른 매력의 캐릭터들이 부딪히며 발산하는 다채로운 케미는 '트레이서'의 풍성한 재미를 한층 배가시킬 것이다.

국세청 배경의 신선한 소재와 통쾌한 스토리, 임시완, 고아성, 손현주, 박우우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배우들의 호흡으로 기대를 모으는 '트레이서'는 2022년 1월 7일 웨이브를 통해 첫 공개되며, MBC에서도 방영될 예정이다.

김효진기자



MBN, '국내 최초' 메타버스 음악 예능 '아바타 싱어'

MBN이 국내 최초로 메타버스 음악 예능 '아바타 싱어(Avatar Singer)'를 론칭한다.

MBN 측은 "방송과 디지털 실감기술을 융합한 메타버스 음악 예능 '아바타 싱어'의 2022년 상반기 방송 편성을 확정했다"면서 "메타버스 세계관 구축과 아바타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운 색다른 포맷의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재미를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20일 서울 중구 광복미디어 센터에서 '아바타 싱어'의 제작사 컴퍼니코비와 메타버스 사업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MBN '아바타 싱어'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디지털 휴먼 미스터

리 뮤직 서버비벌 프로그램으로, 국내 최정상 가수들이 3D 아바타 캐릭터로 창조돼 새로운 디지털 신인가수로 재탄생된다.

여기에 방송을 넘어 '아바타 싱어'의 독자적인 캐릭터 지적재산권(IP)을 기반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NFT 개발을 연결, 통합적인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바타 싱어'의 제작사 컴퍼니코비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탄탄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XR(Extended Reality·확장현실) 무대를 구현해 낼 것"이라며 "2021년 한국 방송작가 예능 부문 수상자인 강승경 작가를 대표 크리에이터

로 발탁한 것은 물론, 국내 최고의 제작진과 실감미디어팀이 참여한다.

'아바타 싱어'의 콘텐츠 완성도를 높이고 킬러콘텐츠 IP로 강화해 메타버스 사업화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디지털 실감기술을 적용한 방송 제작은 미래 방송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티빙오리지널 예능으로 제작된 '가상세계지만 스타가 되고 싶어'는 딥페이크 기술을 적용하였고, 미국 FOX TV에서 방송된 'ALTER EGO'는 모션 캡처 기술을 적용한 아바타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

최만식기자